

차례은 박환모 박범순 한준 김은미

2024 유네스코 미래담론 연구

.....

한국 사회의
미래 변화 인식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미래 활동 방향



문화유산연구원



unesco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 교육부의 지원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기획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집필자의 의견은 교육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4 유네스코 미래담론 연구

한국 사회의 미래 변화 인식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미래 활동 방향

연구진

- 총괄 | 채재은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교육 | 박환보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과학 | 박범순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문화 | 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커뮤니케이션 | 김은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목 차

I. 서론	1
II. 교육	19
III. 과학	43
IV. 문화	59
V. 커뮤니케이션	79
VI. 결론	99

I. 서론

채재은

1.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이유와 방식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글로벌 환경 변화) 오늘날 기후 변화, 기술 혁신, 정치적 불안정, 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도전과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직면하는 과제와 그에 대응하는 우선순위도 변하고 있음.
- 이러한 글로벌 변화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역할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이슈와 도전에 맞춰 사업 방향과 운영 방식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한국 사회의 변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위와 같은 글로벌 활동 외에도 한국의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로서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사회, 사회적 양극화, 불평등, 사회적 신뢰 약화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핵심 문제들에 대해 유네스코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급속한 인구 구조 및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한국 사회의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정부 부처나 시민단체가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국내의 요구) 지난 70년 동안 개발도상국에서 OECD DAC 회원국으로 급성장한 한국의 변화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국내외 역할과 사업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음.
 - (국제 사회의 요구) 한국은 유네스코 분담금 상위 10위 국가로, 여러 분야에서 유네스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글로벌 정책 의제 설정에서 아직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 사회의 요구)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한국 사회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전문성이 더 이상 독보적이지 않음. 이에 따라 기존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새로운 의제와 활동을 이끌어 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다가오는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향후 5개년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2023년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진행한 「유네스코 미래 담론 연구」를 기반으로,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각 분야에서 한국 사회가 향후 30년간 직면하게 될 변화에 대한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연구 내용에 반영하였음.

〈「유네스코 미래 담론 연구」(전상인 외, 2023)의 주요 결과〉

- **교육 분야:** 현재의 복합위기 상황에서 ‘삶의 안전판’으로서 교육의 역할이 미래 교육의 핵심 이슈가 될 예정임. 교육은 ‘학습자의 삶’에 맞춰져야 하며, 학교와 지역 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임.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와 가치관 변화, 그리고 유네스코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개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한국 교육의 혁신 방향을 제안함: 1) 모든 인간의 잠재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버럴 아츠 교육 강화 2) 다양한 삶의 경로를 존중하고, 소외 없는 교육체계 구축 3) 평가 중심 교육을 혁신하고, 엘리트 교육의 재편 모색

- 과학 분야: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은 생명, 인권, 정체성 등 인간의 실존적 문제에 다양한 이슈를 제기할 것이며, 인간과 기술, 인간과 자연의 관계 변화, 그리고 과학 기술 발전에 따른 격차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따라서 과학기술을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해 온 한계를 극복하고, 평화 구축을 위해서 과학과 과학 기술에 대한 성찰적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문화 분야: 디지털 전환, 플랫폼, 인공지능, 지구화의 심화, 저출산 및 인구 감소, 사회·경제적 양극화, 다양한 정체성, 민주주의 위기 등이 미래 문화 변화를 이끌 주요 요인임. 이에 따라 1) 언어의 변화, 2) 문화적 가치의 변화, 3) 문화 산업의 변화, 4) 문화 생산과 소비의 경계 변화, 5) 문화적 부족주의(cultural tribalism)의 부상, 6) 양극화와 혐오의 증가 우려 등이 문화 분야의 미래 이슈로서 대두할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다양성과 창조성, 삶의 질과 진보, 소통과 신뢰 및 통합, 지속 가능성과 공생을 문화 분야의 가치로서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커뮤니케이션 분야: 향후 1) 소통 방식의 변화, 2)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 3) 정보와 지식의 불평등 해소, 4) 개인의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 5) 사회적 약자와 소수 문화를 대변하는 역할, 6)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세계화 등이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이슈가 될 수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핵심적인 미래 역량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음.

나. 연구의 내용

- 분야별 미래 변화
 - 유네스코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주요 활동 분야인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발생할 도전 과제와 미래 트렌드를 분석하였음. 이를 위해 「유네스코 미래 담론 연구」(전상인 외, 2023) 등의 선행연구와 2024년 후속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결과를 참고하였음.
 -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각 핵심 분야별로 미래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기존 활동 중 강화가 필요한 영역과 앞으로 새롭게 추진해야 할 사업 방향을 제안하였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미래 활동 주안점
-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각 분야에서 도출된 미래 변화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미래 변화에 대응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과 활동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음.

다. 연구 방법

- 문헌 검토
 -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등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핵심 활동 영역에서 직면할 도전 과제와 미래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유네스코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발간한 문헌과 학술 자료를 검토하였음. 이를 통해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확보하고, 본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였음.
- 설문조사
 - 대한민국 국민의 인식과 전망을 조사하기 위해 2024년 8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국의 19세에서 59세 사이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조사를 실시하였음. 이번 조사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거주 지역, 학력, 직업 등 다양한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여 세분화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표 I -1. 응답자 현황 (대국민 설문조사)

Unit :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2,000)	100.0
성별	남자	(1,025)	51.2
	여자	(975)	48.8
연령	20대 이하	(436)	21.8
	30대	(446)	22.3
	40대	(529)	26.4
	50대	(589)	29.4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2,000)	100.0
지역	서울	(387)	19.3
	경기·인천	(679)	33.9
	강원권	(54)	2.7
	충청권	(211)	10.5
	제주·전라권	(206)	10.3
	경상권	(463)	23.1
직업	경영/관리직	(105)	5.2
	전문직(의사, 변호사, 약사 등)	(102)	5.1
	사무/기술직	(730)	36.5
	판매/서비스직	(128)	6.4
	기능/작업/단순노무직	(128)	6.4
	농/림/어/축산업	(18)	0.9
	자영업	(104)	5.2
	자유직(프리랜서 등)	(120)	6.0
	전업주부	(208)	10.4
	학생	(136)	6.8
	무직	(187)	9.4
	기타	(35)	1.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56)	27.8
	대학교 졸업	(1,303)	65.2
	대학원 졸업	(141)	7.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61)	13.0
	200~400만원 미만	(575)	28.7
	400~600만원 미만	(531)	26.5
	600~800만원 미만	(319)	16.0
	800만원 이상	(269)	13.5
	모름/무응답	(46)	2.3

표 1 -2. 세부 조사항목

영역	세부 항목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직한 미래 • 현재와 비교하여 30년 뒤 미래 전망 • 30년 뒤 한국사회가 더 나아지도록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 • 한국사회의 영역별 미래 • 영역별 30년 뒤 미래 변화 전망 • 30년 뒤 한국사회가 마주할 위험 관련 전문가 조언에 대한 신뢰도 및 이유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 뒤 한국사회의 교육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요인 • 유네스코가 제안한 미래 교육 혁신 방향 동의도 •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들이 길러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 • 30년 뒤 한국사회의 학교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 30년 뒤 한국사회의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교사의 역할 • 30년 뒤 한국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초·중등학교 교육체제 관련 과제 • 30년 뒤 한국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평생·직업교육 관련 과제
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 로봇 개발 및 이용 관련 항목별 동의도 • 첨단 바이오기술 개발 및 이용 관련 항목별 동의도 • 30년 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불평등 문제 변화 • 30년 뒤 과학기술의 발전이 전문가와 일반시민 사이 대화/소통에 미칠 영향 • 30년 뒤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에 일반시민/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에 대한 인식 • 30년 뒤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도 변화 • 타인 대비 본인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 • 미래사회의 삶에 대한 이해(미래 문해력)를 위한 과학기술 이해 중요도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 뒤 우리 문화에 대한 항목별 영향력 • 다문화 관점에서의 한국사회 문화에 대한 항목별 동의도 • 30년 뒤 한국사회 문화에 대한 예측별 동의도 • 우리나라 문화 관련 현재 및 30년 뒤 평가 • 30년 뒤 한국의 문화예술 취향/소비 변화에 대한 항목별 동의도 • 민족주의/세계시민 관련 주장에 대한 의견
커뮤니케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개인/사회에 대한 30년 뒤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영향력 • 앞으로 변화될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개인의 대처 방향 • 30년 뒤 미디어 유형별 영향력

영역	세부 항목		
커뮤니케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 뒤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에 따라 예상되는 현상별 의견 • 사회경제적 차이에 대한 30년 뒤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영향력 • 향후 30년을 전망했을 때 개인/사회적 과업별 시급성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 연령 • 거주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학력 • 직업 • 가구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평균 가구소득 • 주거유형 • 사회경제적 계층

○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네트워크 내 분야별 전문가 7개 그룹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음. FGI는 2024년 8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했으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기존 활동과 역할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30년 후 미래 변화 속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논의하였음. 또한,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등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각 전문 분야별로 향후 사업의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였음.

표 1-3. 전문가 FGI 주요 내용

영역	세부 항목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존 활동 및 역할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강점 및 약점 • 기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주요 활동성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미래 활동 및 역할 예측	<p>[유네스코한국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 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국내외 역할 변화 • 30년 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활동의 주요 대상 • 30년 후 미래 변화 속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수행해야 하는 고유 역할 및 기능 • 30년 후 유네스코 전문분야(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별 미래 사업의 핵심 키워드 • 분야별 미래 핵심 키워드 관련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활동 방향 • 향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핵심적인 국내외 파트너

영역	세부 항목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미래 활동 및 역할 예측	[UN 체제 내 유네스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 후 UN 체제 변화 • 30년 후 유네스코 내 국가위원회 역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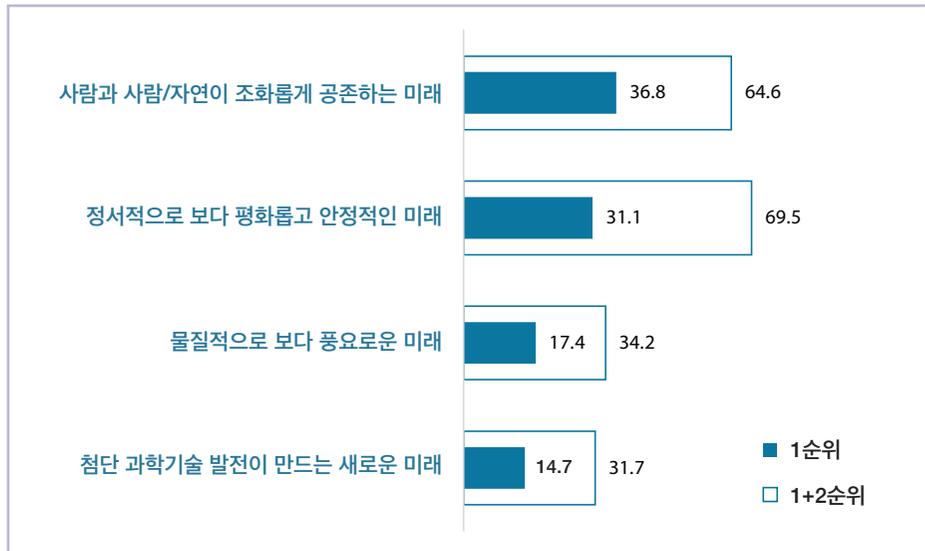
2. 한국 사회의 미래 변화에 대한 인식

- 본 연구를 통해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할 ‘향후 5개년 중장기 활동방향’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미래 변화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중 ‘한국 사회의 미래 변화 관련 공통 영역’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논의하였음.

가. 한국 사회의 미래 전망

- 30년 후의 ‘바람직한 미래 사회상’에 대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꼽은 응답이 36.8%로 가장 많았음.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산했을 때는 ‘정서적으로 보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미래(69.5%)’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64.6%)’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음.
- 이러한 결과는 현재 삶의 행복 기준이 주로 ‘물질적 풍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응답자가 평화와 안정 속에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갈망하고 있음을 보여줌. 즉, 물질적 성공이나 경쟁보다는 ‘조화와 공존의 가치’가 존중되는 미래 사회에 대한 희망이 크다는 점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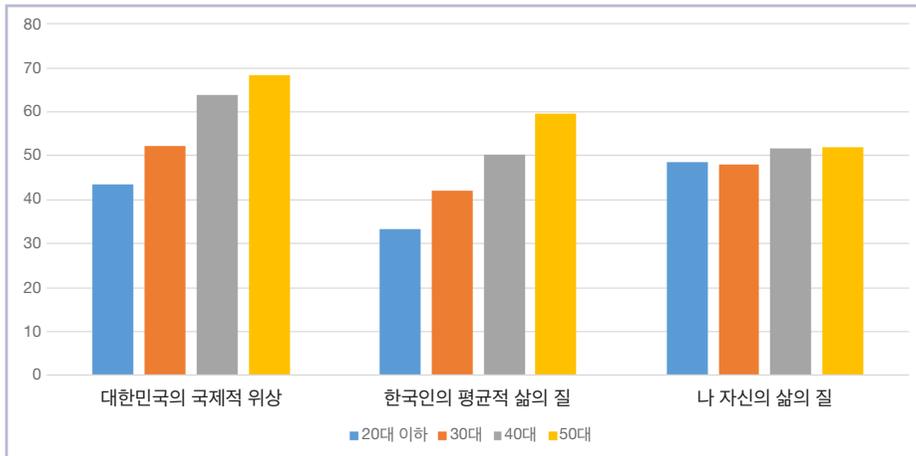
그림 I -1. 바람직한 미래



Base : 전체, N=2,000, Unit : %, 순위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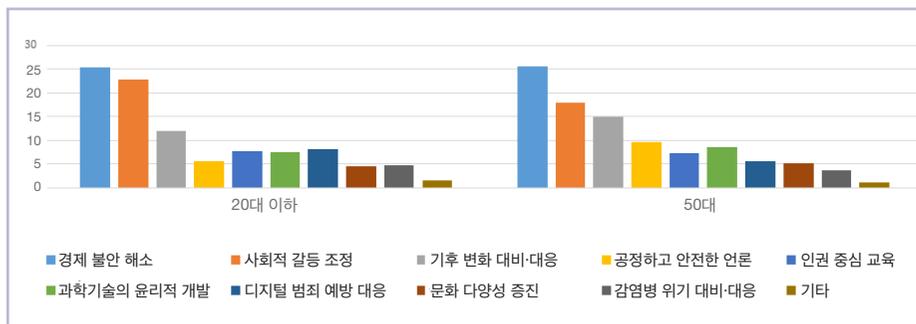
- ‘30년 후 한국사회 미래 전망’과 관련하여 세 가지 항목(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② 한국인의 평균적 삶의 질, ③ 나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가가 조사되었음. 그 결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낙관 전망(약간 좋아질 것+매우 좋아질 것)이 58.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나 자신의 삶의 질’이 50.3%, ‘한국인의 평균적 삶의 질’이 47.5%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음. 젊은 세대일수록 ‘30년 후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음.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한국인의 평균적 삶의 질’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음.

그림 1 -2. 30년 후 한국사회 미래 전망



- ‘30년 후 한국 사회가 더 나아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경제 불안 해소 (26.4%)’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적 갈등 조정(18.1%)’, ‘기후변화 대비·대응(14.1%)’이 뒤를 이었음. 이는 응답자 다수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주요 이슈들, 즉 경제 불안, 사회적 갈등, 기후 변화 등이 단기간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함.
- 20대 이하와 50대 응답자를 비교해 보면, ‘30년 후 한국 사회가 더 나아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의 순위는 ‘경제 불안 해소, 사회적 갈등 조정, 기후변화 대비·대응’으로 동일하나, 20대 이하에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중요하게 본 비율이 50대에 비해 훨씬 높았음. 이는 20대 이하 세대가 사회적 갈등에 대해 더 큰 우려를 가지고 있거나,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크게 느낄 가능성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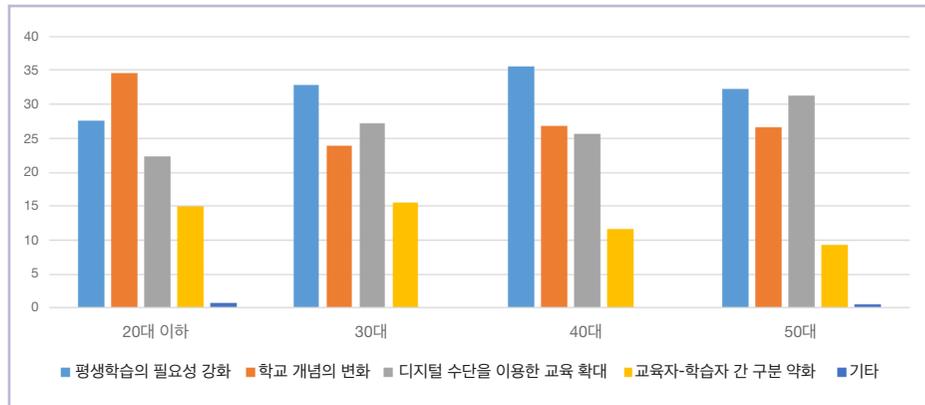
그림 1 -3. 30년 후 한국사회가 더 나아지도록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



나. 영역별 전망

- ‘교육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의 필요성 강화(32.2%)’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 개념의 변화(27.8%)’,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교육 확대(27.0%)’ 순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세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20대 이하 응답자 중에서는 ‘학교 개념의 변화’가 3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음. 이는 ‘코로나 세대’로서 비대면 수업을 실제로 경험한 20대 이하가 더 이상 학교를 절대적인 교육 장소로 인식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일 수 있음.
- 반면, ‘평생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비율은 4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40대가 경력 전환 및 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의 필요성에 가장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함.
- 한편,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교육 확대’에 대해서는 50대 응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이는 디지털 전환에 적응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세대가 50대임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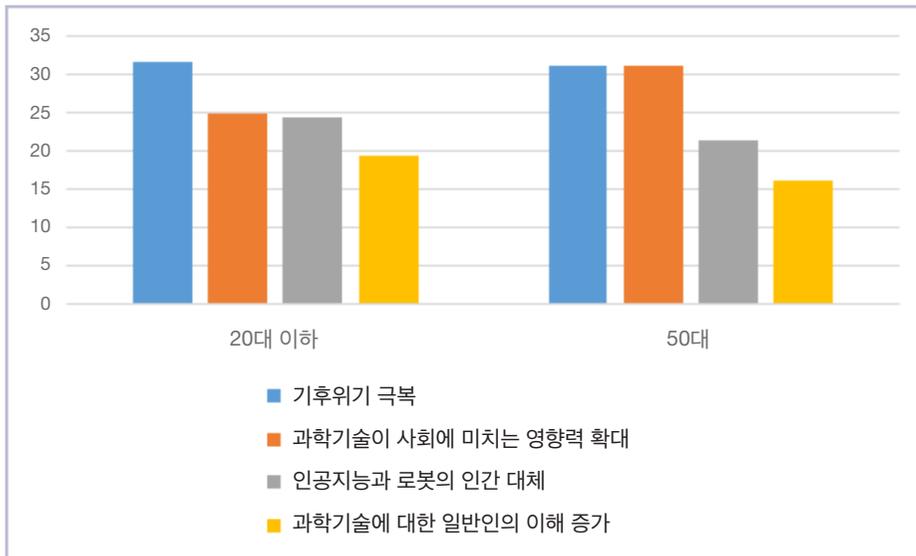
그림 I -4. 교육의 미래



- ‘과학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극복(30.2%)’,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28.2%)’, ‘인공지능과 로봇의 인간 대체(22.9%)’ 순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음.

- 20대 이하와 50대의 응답 결과를 비교해보면, ‘기후위기 극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다른 항목들에 대한 응답 비율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기후위기 극복(31.1%)’과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31%)’의 응답 비율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20대 이하에서는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24.7%)’와 ‘인공지능과 로봇의 인간 대체(24.3%)’의 응답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학교 교육을 통해 첨단 기술에 더 많이 노출된 20대 이하 세대가 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가능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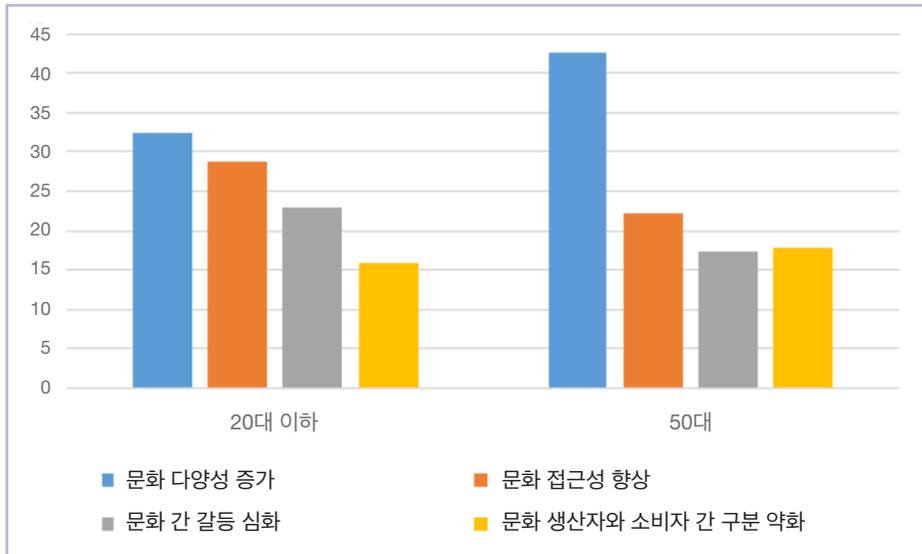
그림 1-5. 과학의 미래



- ‘문화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문화다양성 증가(37.4%)’, ‘문화 접근성 향상(23.8%)’, ‘문화 간 갈등 심화(21.2%)’의 순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음.
- 20대 이하와 50대 응답자 간 비교 결과, 두 세대 모두 ‘문화다양성 증가’를 가장 중요한 문화의 미래 전망으로 꼽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항목별 응답 비율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음.

- 20대 이하의 경우, 1순위인 ‘문화다양성 증가(32.3%)’와 2순위인 ‘문화 접근성 향상(28.8%)’ 간의 비율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50대의 경우 1순위인 ‘문화다양성 증가(42.7%)’와 2순위인 ‘문화 접근성 향상(22.2%)’ 간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50대 응답자들이 20~30대 시절에 경험했던 문화에 비해 현재의 문화가 훨씬 더 다양해졌다고 느끼기 때문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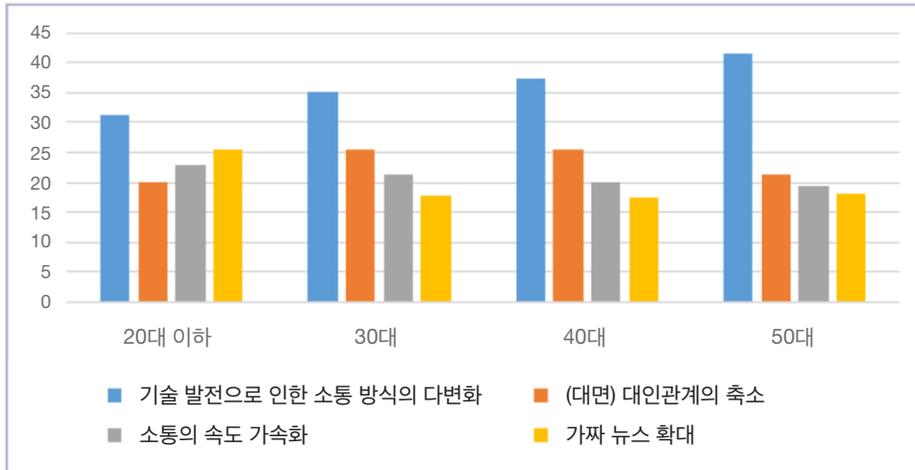
그림 I -6. 문화의 미래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기술 발전으로 인한 소통 방식의 다변화(36.7%)’, ‘(대면) 대인관계의 축소(23.1%)’, ‘소통의 속도 가속화(20.8%)’ 순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음.
- 전 세대에 걸쳐 ‘기술 발전으로 인한 소통 방식의 다변화’가 가장 많이 지적된 공통점이 있었으나, 그 외 항목에서는 세대별 차이가 두드러졌음. 특히, ‘20대 이하’는 다른 세대와 전혀 다른 응답 경향을 보였음.
- 20대 이하의 경우, 1순위를 제외하고는 ‘가짜 뉴스 확대(25.5%)’, ‘소통의 속도 가속화(23.0%)’, ‘(대면) 대인관계의 축소(20.1%)’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30~50대에서는 ‘(대면) 대인관계의 축소’, ‘소통의 속도 가속화’, ‘가짜 뉴스 확대’ 순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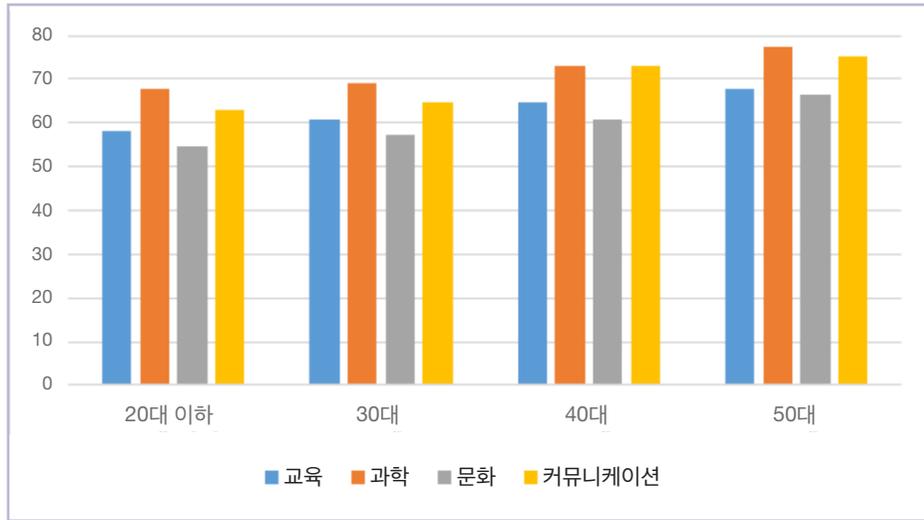
타났음. 이러한 차이는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20대 이하가 다른 세대보다 ‘가짜 뉴스 확대’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함.

그림 1-7. 커뮤니케이션(미디어)의 미래



- ‘영역별 30년 뒤 미래 변화 전망’에 대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현재와 달라질 것이라는 변화 전망이 60%를 넘었으며, 그 중 ‘과학’ 영역의 변화가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그 뒤를 이어 ‘커뮤니케이션(69.5%)’, ‘교육(63.2%)’, ‘문화(60.3%)’ 순으로 변화가 예상되었음.
- 이러한 결과는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이미 ‘과학’과 ‘커뮤니케이션’의 급속한 발전이 20대 이하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일과 삶의 양식, 그리고 인간관계 등에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그림 I -8. 영역별 30년 뒤 미래 변화 전망



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미래 역할에 대한 시사점

- 앞서 살펴본 결과들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미래 역할에 대한 의미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무엇보다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30년 후 바람직한 미래 사회상’에 대한 질문에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던 것은, 현재 삶의 행복 기준으로 ‘물질적 풍요로움’이 중시되고 있지만, 많은 응답자가 평화와 안정 속에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갈망하고 있음을 보여줌.
- 또한, 한국 사회가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층에서 ‘한국인의 평균적 삶의 질’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핵심 영역에서 제시된 미래 변화 또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미래 역할과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교육: ‘평생학습의 필요성 강화(32.2%)’, ‘학교 개념의 변화(27.8%)’,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교육 확대(27.0%)’ 등의 순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음.
- 과학: ‘기후위기 극복(30.2%)’,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28.2%)’, ‘인공지능과 로봇의 인간 대체(22.9%)’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 문화: ‘문화다양성 증가(37.4%)’, ‘문화 접근성 향상(23.8%)’, ‘문화 간 갈등 심화(21.2%)’ 순으로 나타났음.
- 커뮤니케이션(미디어): ‘기술 발전으로 인한 소통 방식의 다변화(36.7%)’, ‘(대면) 대인관계의 축소(23.1%)’, ‘소통의 속도 가속화(20.8%)’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 이러한 결과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추진하는 각 영역별 사업의 포트폴리오 구성과 우선순위 설정에 유의미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음.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미래 변화에 따른 이슈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강화해야 할 사업, 폐지할 사업, 그리고 새롭게 추진할 사업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청년 세대의 인식이 다른 세대와 크게 다른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활동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II. 교육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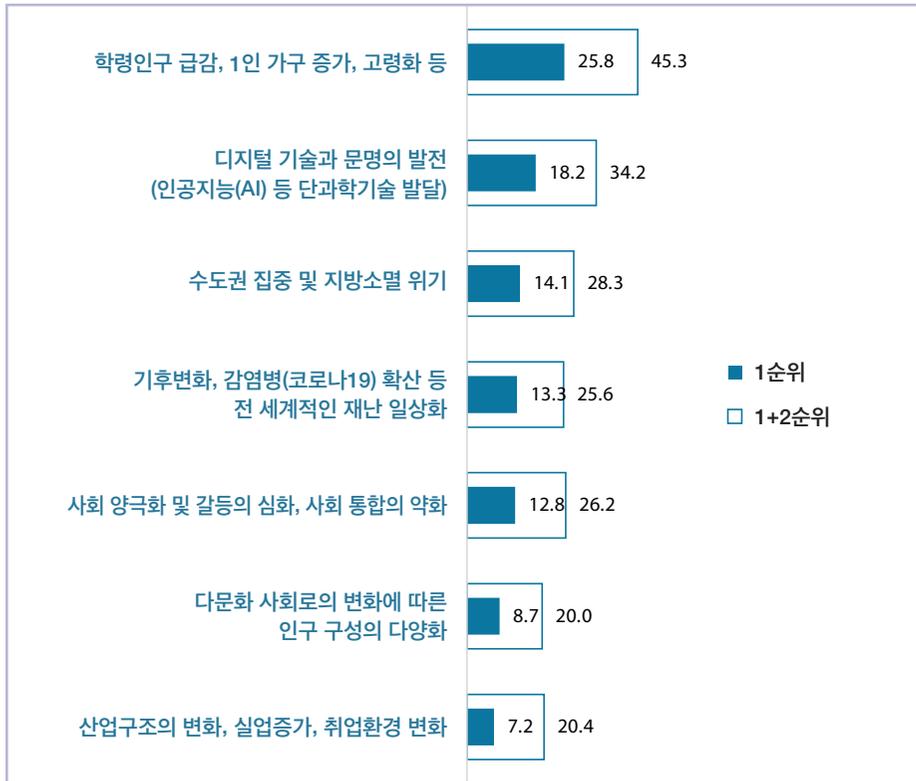
박 환 보

1. 미래 변화 인식

가. 30년 뒤 한국사회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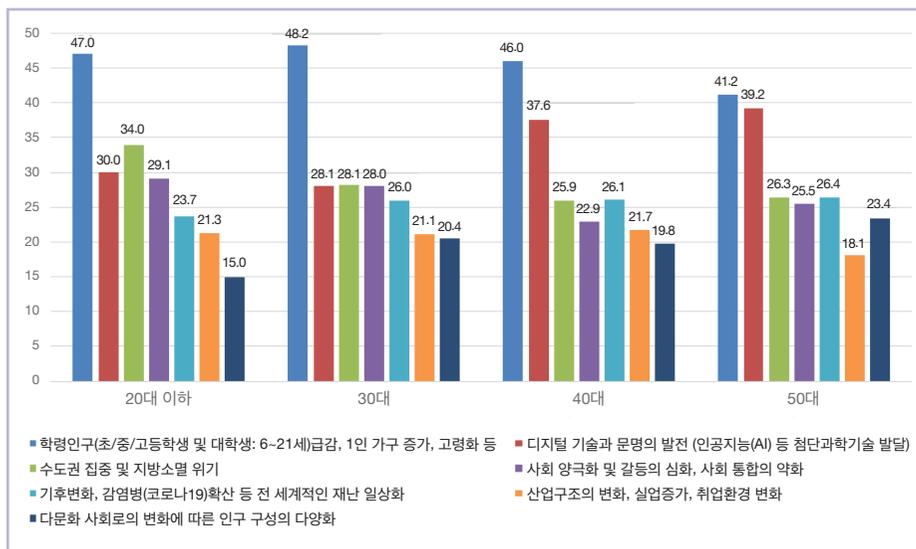
- 30년 뒤 한국사회의 교육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 요인에 대해 ‘학령인구 급감,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25.8%)’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디지털 기술과 문명의 발전(18.2%)’이 뒤를 이었음.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산한 결과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음.
- 다만, 학령인구 감소 외에 교육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에서는 연령, 지역, 계층에 따라 인식 차이가 나타났음. 20대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 외에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 위기(34.0%)’를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했음. 반면에, 40대와 50대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문명의 발전’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지역별로는 강원권에서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 위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계층별로 보면, 최상위계층에서는 ‘학령인구 감소(51.9%)’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회 양극화 및 갈등의 심화, 사회통합의 악화(39.0%)’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이러한 결과는 세대, 지역, 계층별로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미래 교육의 변화에 대해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II -9. 30년 뒤 한국사회의 교육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요인



Base : 전체, N=2,000, Unit : %, 순위응답

그림 II -10. 30년 뒤 한국사회의 교육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요인 (세대별 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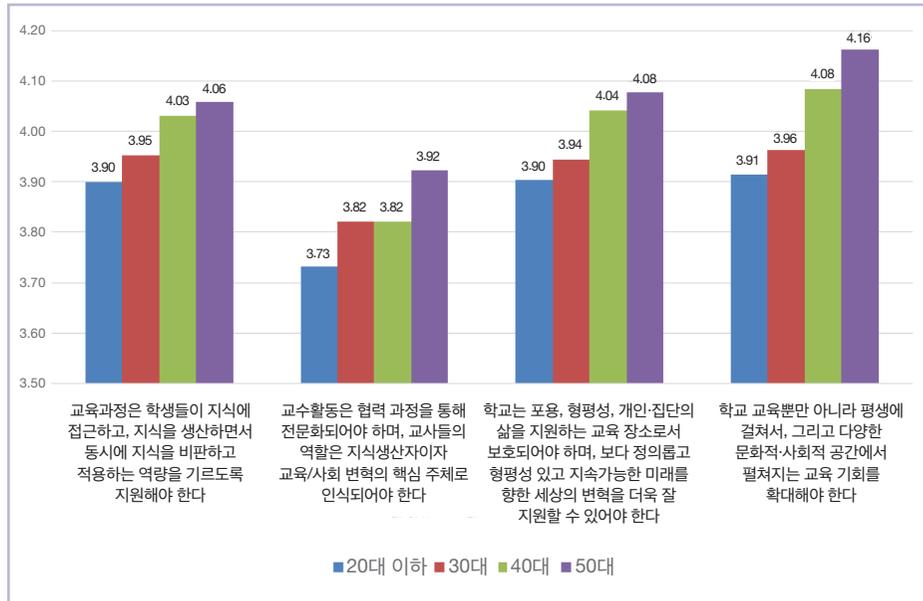
나. 유네스코의 미래 교육 혁신 방향에 대한 동의도

- 유네스코가 제안한 미래 교육 혁신 방향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에 대해 과반수가 동의하고 있었으며, 동의 수준은 67.7%~75.7%로 조사됨. 항목 중에서는 ‘교수활동은 협력 과정을 통해 전문화되어야 하며, 교사들의 역할은 지식생산자이자 교육/사회 변혁의 핵심 주체로 인식되어야 한다’에 대한 인식이 67.7%로 가장 낮았음.
- 이는 유네스코가 제안한 미래 교육의 내용, 교육제도, 교육과정 등의 혁신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교수학습활동이나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음을 시사함.
- 또한 연령, 학력, 사회적 계층에 따라 동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유네스코의 미래 교육 혁신 방향에 대해 동의하였음. 특히 30대 이하 청년 세대나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의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이들이 미래 교육 방향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거나 미래의 이상적인 모습보다는 현재의 교육문제 해결과 같은 현실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그림 II -11. 유네스코의 미래 교육 혁신 방향에 대한 동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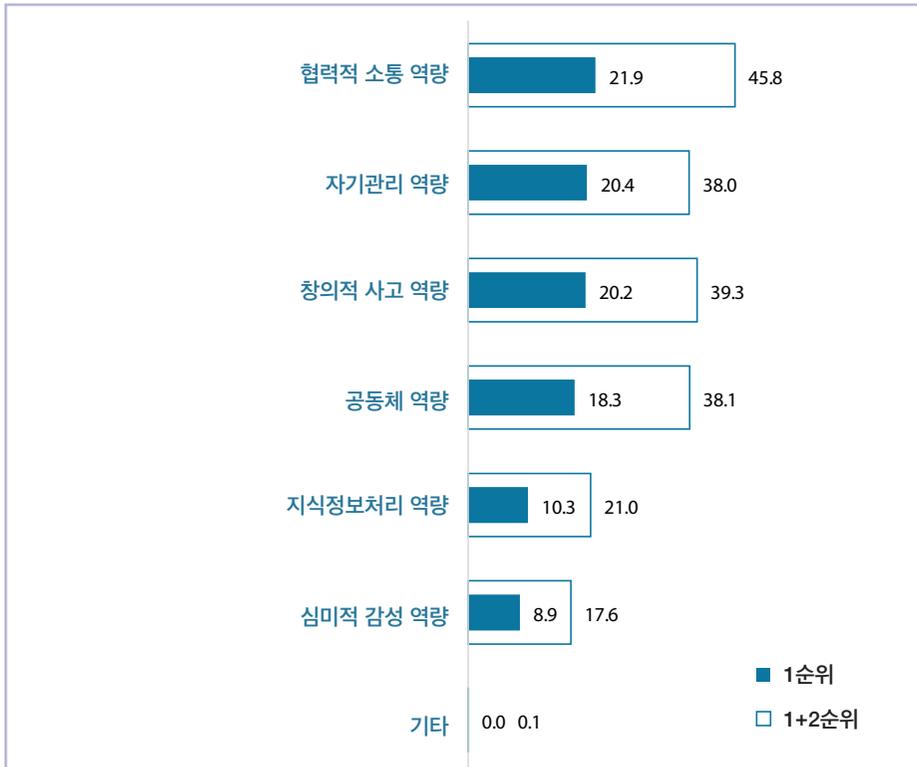
그림 II-12. 유네스코의 미래 교육 혁신 방향에 대한 동의도 (세대별 인식 차이)



다. 미래 학생 역량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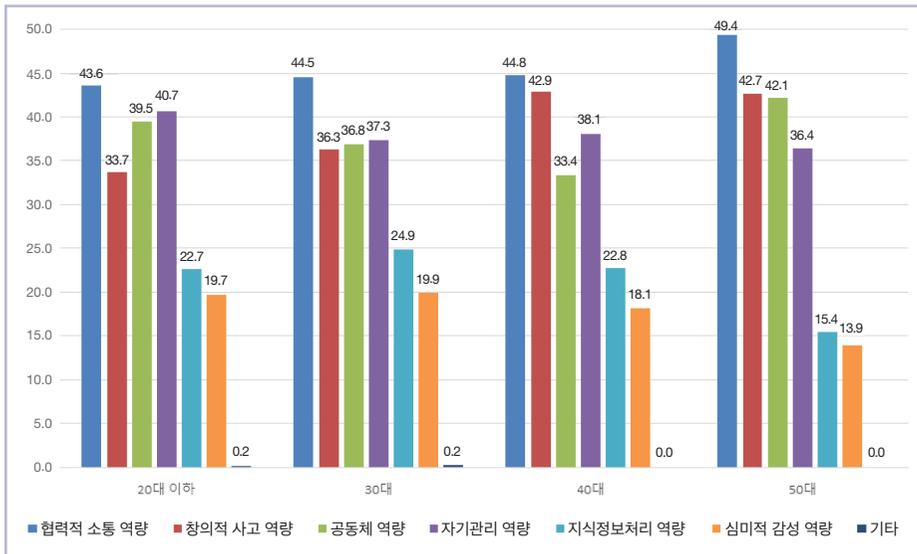
-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들이 길러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에 대해, ‘협력적 소통 역량(21.9%)’, ‘자기관리 역량(20.4%)’, ‘창의적 사고 역량(20.2%)’의 순으로 응답했음.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결과, ‘협력적 소통 역량(45.8%)’, ‘창의적 사고 역량(39.3%)’, ‘공동체 역량(38.1%)’, ‘자기관리 역량(38.0%)’ 순으로 나타났음.
-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강조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외의 미래 역량에 대한 인식에서는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20대 이하 청년층(40.7%)과 30대 청년층(37.3%)은 ‘자기관리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에, 40대 중년층(42.9%)과 50대 장년층(42.7%)은 ‘창의적 사고 역량’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자신이 경험한 교육이나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계층에 따라 협력적 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에서 경향성 차이가 나타났음. 예를 들어, 상위계층에서는 협력과 소통 역량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반면에 최하위 및 하위계층에서는 공동체 역량을 중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미래 교육의 방향 설정에 있어 계층 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함.

그림 II -13.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들이 길러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



Base : 전체, N=2,000, Unit : %, 순위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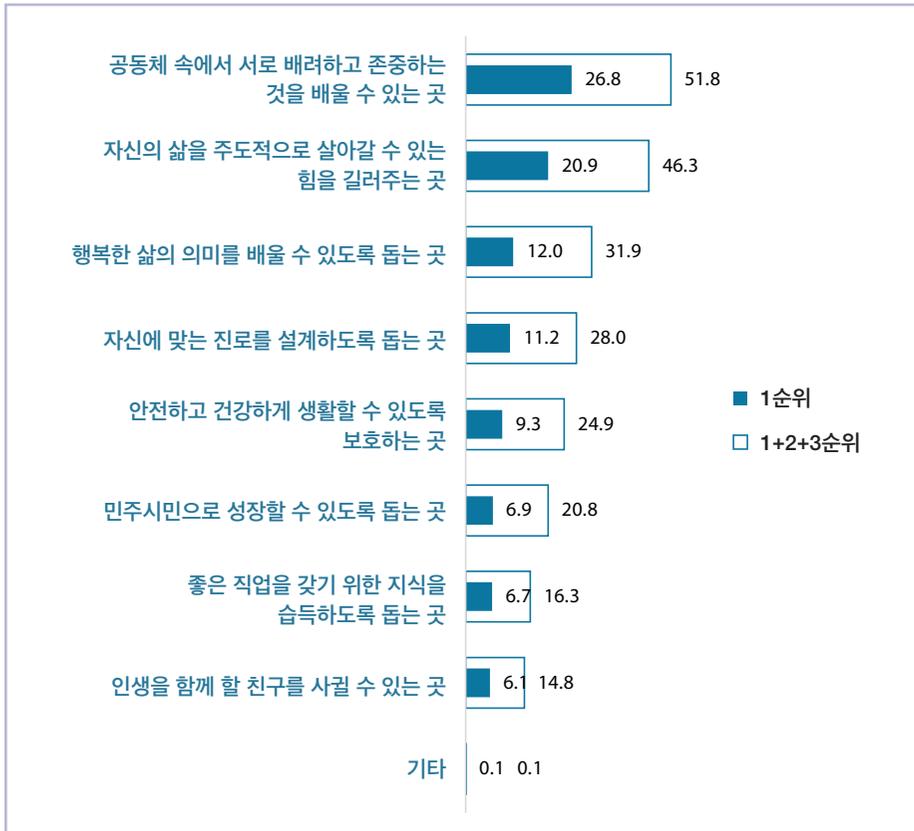
그림 II -14.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들이 길러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 (세대별)



라. 미래 학교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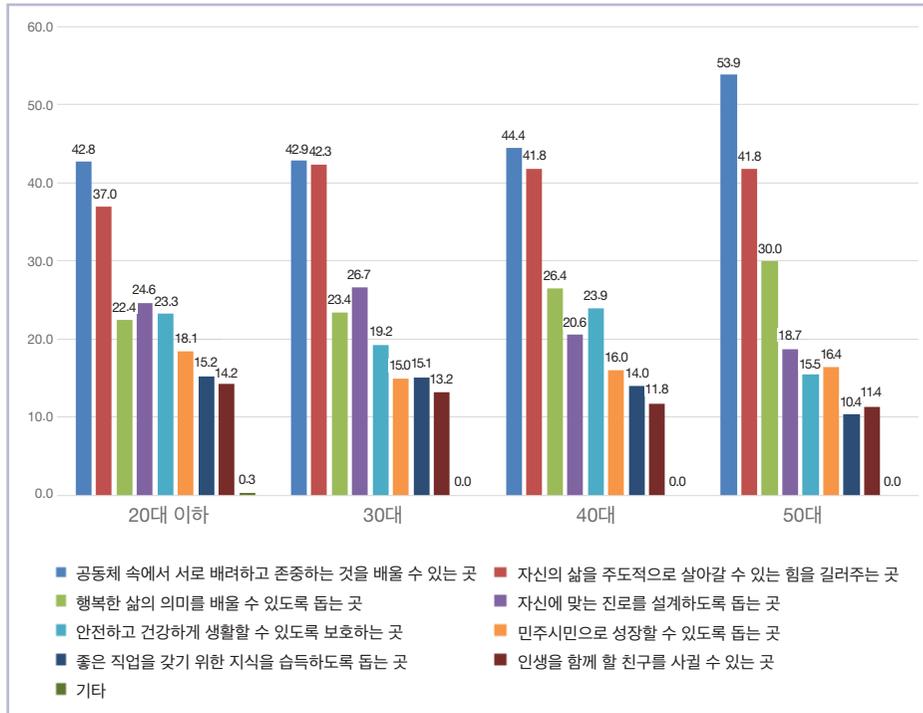
- 30년 뒤 한국 사회에서 학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 ‘공동체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곳(26.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곳(20.9%)’이란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음.
- 이러한 결과는 미래 학생들이 길러야 할 역량에 대한 인식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 줌. 불확실한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함과 더불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고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함.
- 세대별로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났음. 20대(24.6%)와 30대(26.7%)는 ‘자신에 맞는 진로를 설계하도록 돕는 곳(13.2%)’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반면에 50대에서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곳(53.9%)’이라는 응답이 다른 세대에 비해 월등하게 많았으며, ‘행복한 삶의 의미를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곳(30.0%)’이라는 응답자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이는 응답자들이 경험했던 학교의 한계를 토대로 미래 학교 교육에서는 그러한 한계점이 극복되기를 기대하는 희망이 투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II -15. 30년 뒤 한국사회의 학교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Base : 전체, N=2,000, Unit : %, 순위응답

그림 II-16. 30년 뒤 한국사회의 학교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1+2순위, 세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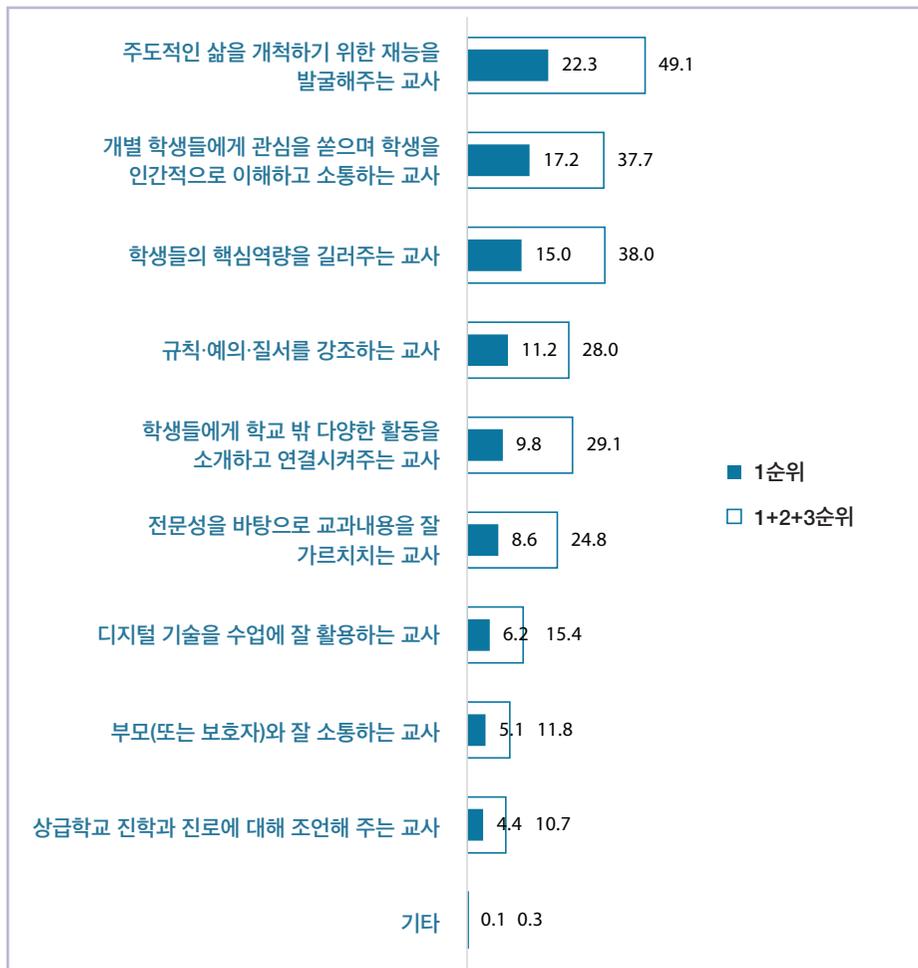
마. 미래 교사의 역할

- 30년 뒤 한국 사회에서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 ‘주도적인 삶을 개척하기 위한 재능을 발굴해주는 교사(22.3%)’를 꼽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개별 학생들에게 관심을 쏟으며 학생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교사(17.2%)’가 뒤를 이었음. 1 순위와 2순위를 합한 값도 동일한 경향을 보임.
- 연령과 학력에 따라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했음. 특히 ‘주도적인 삶을 개척하기 위한 재능을 발굴해주는 교사’라는 응답자 비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이는 미래 사회의 교사에 대한 기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학창 시절에 경험했던 교사의 모습과 현재의 삶을 함께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또한 20대 이하에서는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교사(17.7%)’가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보였음. 이는 최근 20대 청년층의 진로 고민이나 노동시장 이행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자신이 처한 현실에 근거해서 미래 교사의 역

할에 대한 기대를 응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반면에, 50대의 경우에는 ‘규칙·예의·질서를 강조하는 교사’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이는 이들 세대가 경험했던 권위적이고 규율을 중시한 교사의 모습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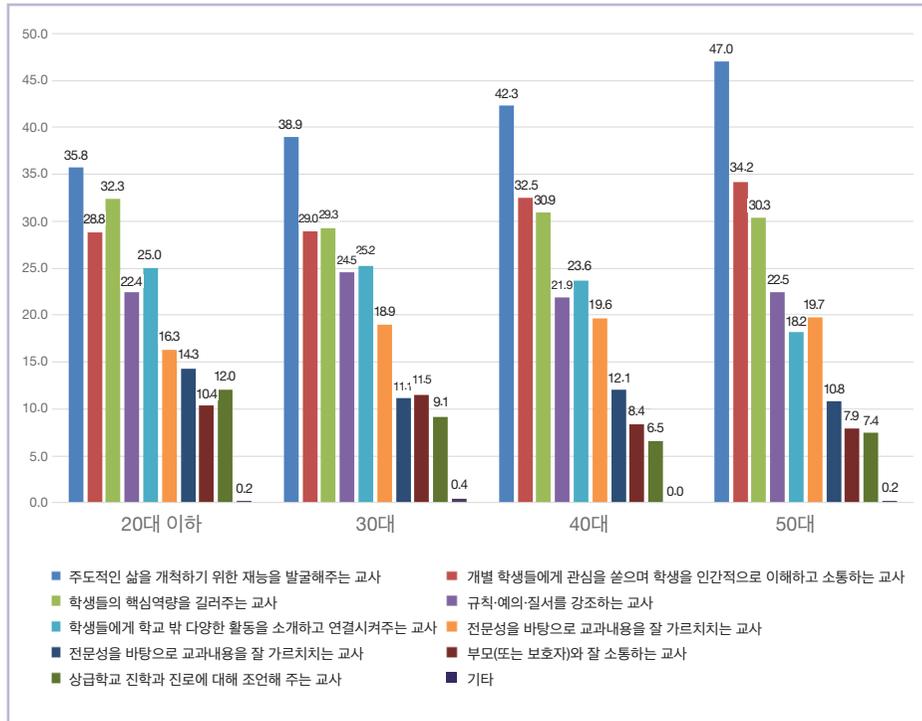
- 학력과 관련해서 대학원 졸업 이상 집단에서는 ‘개별학생들에게 관심으로 쏟으며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교사(25.0%)’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대학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 학교에서 습득하는 정보나 기술보다는 교사와의 관계를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그림 II -17. 30년 뒤 한국사회의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교사의 역할



Base : 전체, N=2,000, Unit : %, 순위응답

그림 II-18. 30년 뒤 한국사회의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교사의 역할 (1+2순위, 세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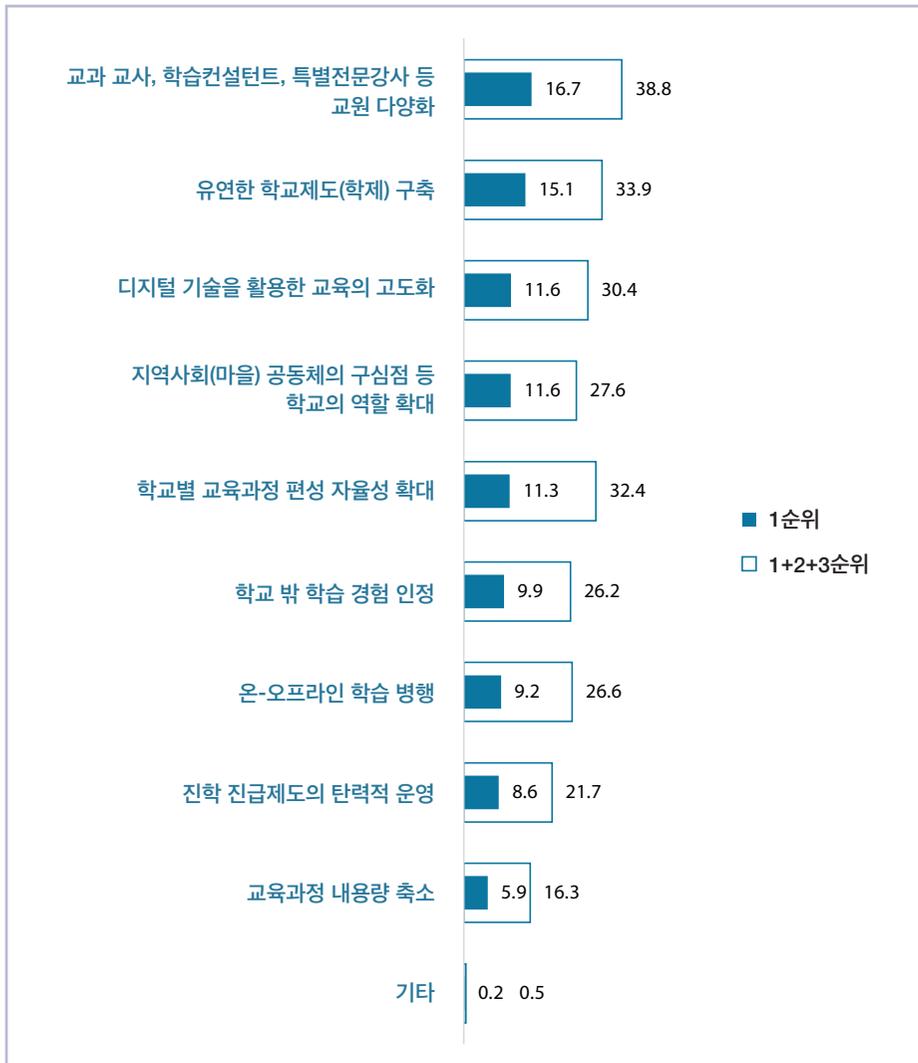


바. 미래 초중등 학교 교육의 과제

- 30년 뒤 한국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초중등 학교 교육체제의 과제에 대해, ‘교과 교사, 학습컨설턴트, 특별전문강사 등 교원 다양화(16.7%)’와 ‘유연한 학교제도(학제) 구축(15.1%)’을 꼽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이러한 결과는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사의 자격과 학교 교육 체제가 보다 유연하고 다양해져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함.
- 또한 세대별로 인식차이가 존재했는데, 20대의 경우에는 학교 밖 학습 경험 인정 (24.8%)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반면에 30대에서는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 확대(25.6%)’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의 고도화(25.3%)’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40대와 50대도 유사한 경향을 보임.
- 이러한 결과는 20대 청년세대들이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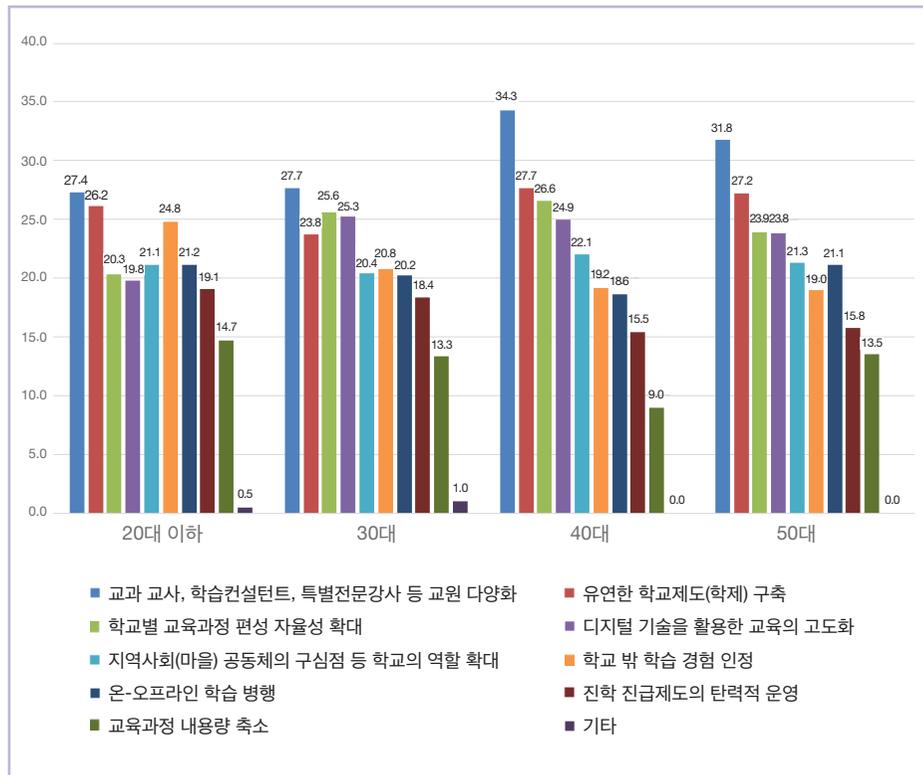
위해 택한 공동체 거부와 개인주의적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집단학습보다는 개별화된 학습과 경험에 익숙한 20대들은 초·중등학교 교육 체제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도 개인 차원에서 학습한 경험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함. 반면에, 30대 이상에서는 공동체 혹은 제도로써 학교교육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그림 II -19. 30년 뒤 한국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초·중등학교 교육체제 관련 과제



Base : 전체, N=2,000, Unit : %, 순위응답

그림 II-20. 30년 뒤 한국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초·중등학교 교육체제 관련 과제 (1+2순위, 세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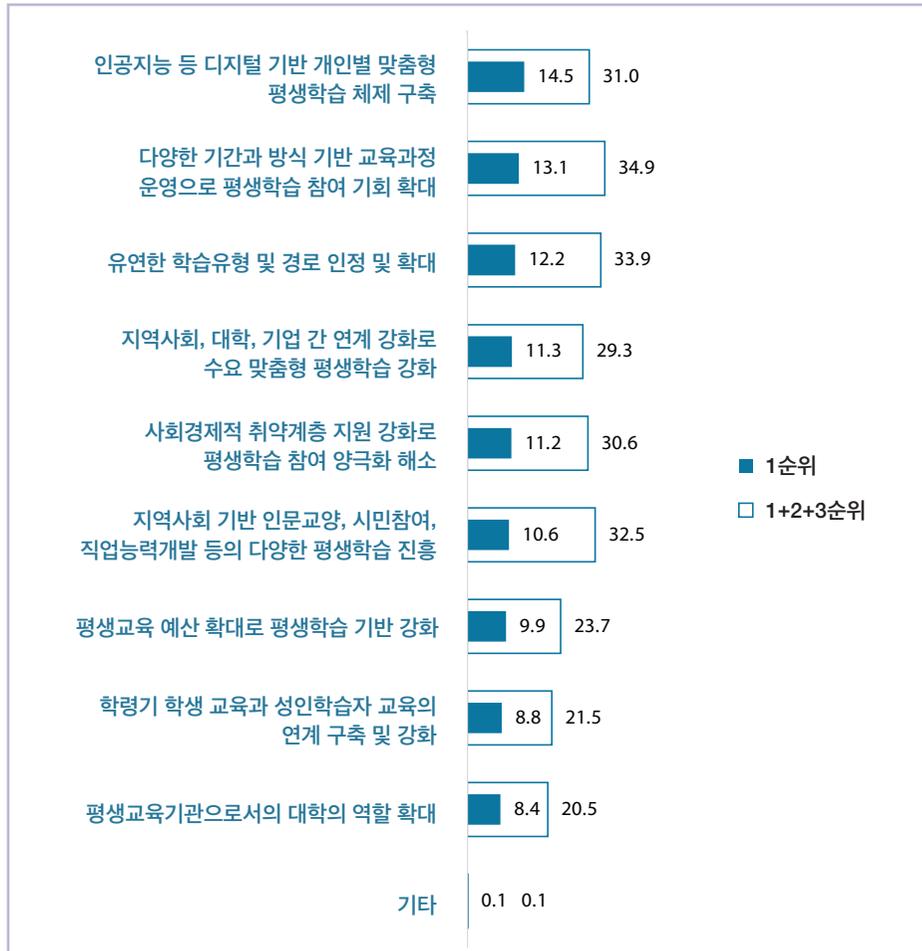
사. 미래 평생 직업 교육 관련 과제

- 30년 뒤 한국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평생 직업교육의 과제에 대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개인별 맞춤형 평생학습 체제 구축(14.5%)’, ‘다양한 기간과 방식 기반 교육과정 운영으로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13.1%)’, ‘유연한 학습유형 및 경로 인정 및 확대(12.2%)’ 등을 꼽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이러한 결과는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평생 직업교육 기회, 내용, 운영 방식 등이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함. 학력별로 1순위 응답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했는데, 대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에서는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개인별 맞춤형 평생학습 체제 구축’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대학원졸업 집단에서는 ‘유연한 학습유형 및 경로 인정 및 확대(15.0%)’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 고학력 집단에서는 평생교육 체제에서 학습할 내용보다는 자신이 여러 경로를 통해 학습한 결과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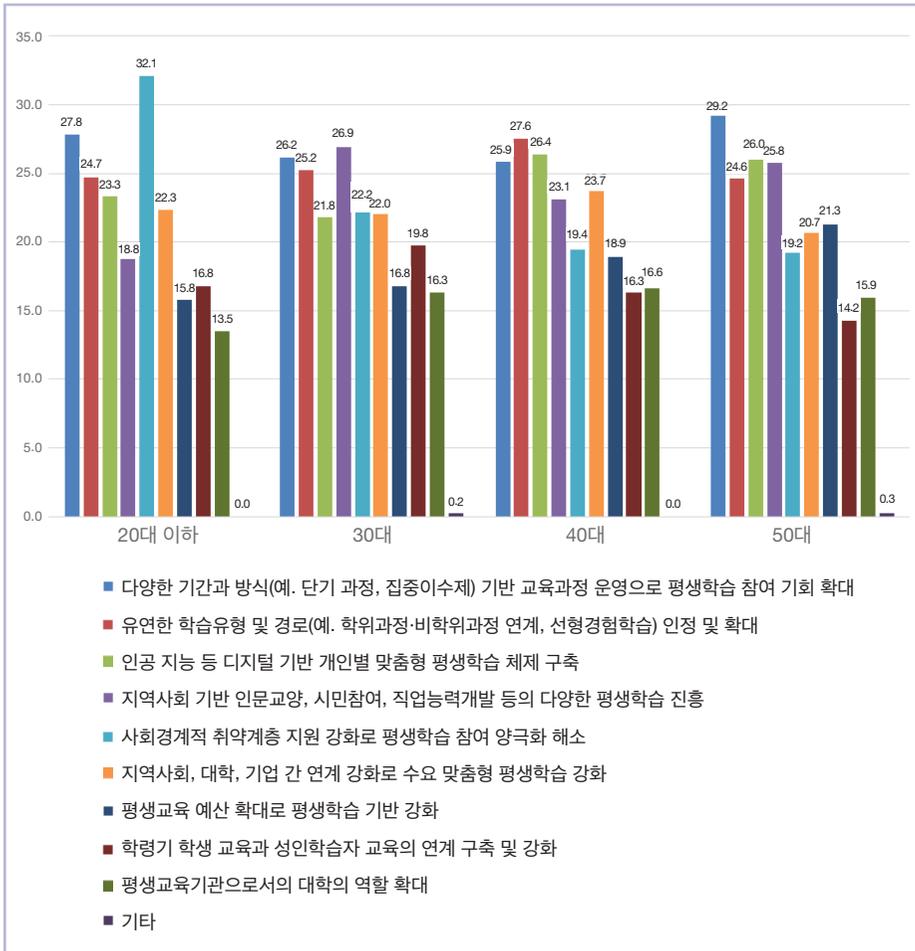
-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세대별로 평생 직업교육의 과제에 대한 인식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20대의 경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평생학습 참여 양극화 해소(32.1%)’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30대에서는 ‘지역사회 기반 인문교양, 시민참여, 직업능력개발 등의 다양한 평생학습 진흥(26.9%)’, 40대에서는 ‘유연한 학습유형 및 경로 인정 및 확대(27.6%)’, 50대에서는 ‘다양한 기간과 방식 기반 교육과정 운영으로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29.2%)’를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많았음.
- 평생 직업교육 관련 과제에 대한 응답은 세대별로 현재 자신이 처한 현실과 경험에 기초해서 미래에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학력별로 인식 차이가 존재했는데, 대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에서는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개인별 맞춤형 평생학습 체제 구축’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대학원졸업 집단에서는 ‘유연한 학습유형 및 경로 인정 및 확대(15.0%)’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 고학력 집단에서는 평생교육 체제에서 학습할 내용보다는 자신이 여러 경로를 통해 학습한 결과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II-21. 30년 뒤 한국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평생·직업교육 관련 과제



Base : 전체, N=2,000, Unit : %, 순위응답

그림 II -22. 30년 뒤 한국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평생·직업교육 관련 과제(1+2순위, 세대별)



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 분야에 대한 시사점

가. 국제와 국내 네트워크의 매개자 기능 강화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국제 네트워크와 국내 네트워크를 보다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갖고 있는 강점은 교육 분야의 국제와 국내 네트워크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고, 두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다는 점임. 교육 분야 전문가들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국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제와 국내를 연결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점으로 인식했음.
- 교육 문제는 개별 국가의 맥락에서 기인한 국내적 이슈로 인식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교육제도와 정책이 동형화되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교육문제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교 국제적인 시각이 필요함.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적인 교육의제와 담론을 효과적으로 국내에 전달하고 국내의 맥락에서 관련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 그러나 국내 교육 관련 학계나 전문가들의 국제 네트워크가 확대되었고, OECD를 비롯해서 새로운 국제 네트워크의 영향력도 확대됨에 따라 연결자로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역할은 축소되었음.
- 또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국제사회의 논의는 한국 사회에 잘 전달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나 담론을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은 미흡했다는 지적도 존재함. 특히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슈를 국제적으로 부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향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역할은 국제 네트워크의 논의를 국내에 단순히 전달하는 기능을 넘어, 국제 논의를 한국의 맥락에서 성찰하고 국내의 교육 문제를 국제 네트워크 속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의제로 제안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와 국내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한국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활성화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국 사회 변화나 국내 교육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의 네트워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교육 논의와 담론을 한국 사회에 소개하고 논의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음. 그러나 국가위원회로서 한국 사회 변화나 국내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함.
- 한국 사회의 교육에 관한 논의는 교육기회 확대를 여전히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는 국제 사회의 의제와 다소 차이가 있음. 이미 초중등 및 고등교육 기회의 보편화 현상을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는 교육기회 확대 논의보다는 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고, 과도한 사교육비, 교육불평등, 지역 격차, 기초학력보장, 인권친화적인 학교 등 여러 현안 문제 해결에 고민하고 있음.
- 이러한 교육 문제에 대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해법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국내의 논의와 활동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미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나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 네트워크 등의 국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지금까지 이러한 네트워크가 국제와 국내의 논의를 연결하고 상호 학습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는 국내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다. 세대별 특성에 따른 참여 기회 확대

- 유네스코 이념 실현과 미래 한국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간다는 관점에서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앞에서 살펴 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미래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이나 교육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해법에 있어 세대 간의 차이가 나타났음.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교육의 미래에 대한 인식도 미래를 상정하기보다는 자신이 경험했던

교육이 갖고 있던 한계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음. 특히 20대 이하 청년층과 50대 장년층 간의 인식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자식 세대 간의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함.

- 미래 교육에 대한 세대 간의 인식 차이는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하며, 어느 한쪽의 입장만으로 교육의 혁신 방향을 정할 수 없을 것임. 결국 상호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함.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오랫동안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 한국 유네스코 학생회, 유네스코 대학생 협력동아리, 유네스코 키즈 프로그램 등 아동 청소년과 대학생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였음. 이러한 활동 경험을 토대로, 미래 세대들이 유네스코의 이름 아래 미래 한국 교육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40-50대 중장년층은 일부 전문가 집단을 제외하고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음. 따라서 이들이 유네스코의 이념에 공감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청년 세대와 소통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차원에서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라. 교육 ODA 사업 확대 및 네트워크 활성화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교육 ODA 사업인 ‘브릿지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 운영 방식을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브릿지 사업’을 통해 10년 이상 기초교육 분야의 ODA 사업 주체로 활발하게 활동하였음. 브릿지 사업은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 내 교육소외계층의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의 이행 목표인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4번인 ‘양질의 교육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ODA 사업임.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설립 초기부터 수원국으로서 한국이 유네스코와 회원국들의 재정 및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그러나 현재 한국은 ODA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유네스코한국위원

회의 역할도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재정과 기술을 다른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변화하였음.

- 기초교육 분야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고 지원도 부족한 실정임. 국내에서도 유네스코 브릿지 사업이 거의 유일하게 기초교육 분야에 대해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협력국 내에서 보다 많은 학습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강점은 교사, 교육전문가, 교육정책가 등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임. 따라서 협력국 내에서도 교육전문가 집단의 전문성 향상과 더불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 학습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브릿지 사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육 ODA 사업 경험과 성과를 함께 성찰하고, 이를 유네스코 채널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음.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강점은 국제와 국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연결할 수 있다는 점임. 한국의 ODA 사업은 여전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주체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국제적인 인지도도 낮은 실정임.
- 따라서 교육 ODA 컨퍼런스와 같은 자리를 통해 국내 ODA 행위자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유네스코 총회나 유네스코 주최의 국제회의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마. 시도교육청의 국제교육협력 지원 기능

-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갖고 있는 회원국 국가위원회 및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와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국내 국제교육협력 주체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각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도 국제교육협력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확대되었으며, 국제교육협력에 대한 인식도 특별한 소수를 위한 별도의 활동이 아니라 학교교육과정과 연계된 보편교육으로 변화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교육현장에서 국제교육협력을 위한 콘텐츠나 네트워크는 부족한 실정이며, 담당교사나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 국제화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교육활동과 성과에서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네트워크, 특히 회원국의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및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국제교육협력을 희망하는 국내 교육 주체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바. 유네스코 이념 실현을 위한 평생교육 확대

- 유네스코 이념 실현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추진하는 유네스코 학교 사업은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 유네스코 이념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만, 평생학습 영역의 글로벌학습도시의 경우에는 평생학습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그러나 앞의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미래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세대 간의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사회 통합이나 문화다양성 이슈 등은 50대 이상 세대가 더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음.
- 한국 사회에서 국제이해교육, 다문화교육, 평화교육, 세계시민교육 등의 유네스코 이념 실현과 관련한 교육은 주로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도교육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인들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교육 기회조차 얻기 어려움. 이러한 교육경험의 차이가 미래 한국 사회 변화나 교육 혁신 방향에 대한 인식 차이를 초래한 것일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활동 방향은 학교교육 내에서 유네스코의 이념 실현과 함께 평생교육 영역에서도 유네스코 이념 실현이라는 교육의 방향성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실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글로벌학습도시 네트워크에 속한 지자체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유네스코 이념 실현을 위한 시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문화예술교육과 유네스코의 활동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 볼 수 있음.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보다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유네스코의 이념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삶과 연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임.

사. 평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실천 지원

- 평화를 위한 유네스코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평화 교육 콘텐츠 개발과 실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10월 유네스코 제220차 집행이사회에서 유네스코 사무국은 「2023 평화, 인권, 국제이해, 협력, 기본적 자유, 세계시민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권고」 이행 방안으로 ‘평화를 위한 교육에 대한 새로운 플래그십’을 제안함.
- 한국은 분단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화라는 주제를 국제사회 의제로 제안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지만, 국내에서 이 주제를 다루는 데에는 한계도 있음.
- 또한 국내에서 유네스코는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라기보다는 세계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 지정을 담당하는 기구로 인식하거나 국제교류활동을 제공하는 여러 기관 중의 하나로 인식되기도 함.
- 그러나 평화 교육에 대한 논의는 전쟁이나 국제분쟁과 같은 거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평화적 과정을 통한 갈등해결을 포함하고 있음. 이는 곧 ‘협력적인 소통 역량’을 의미하며, ‘공동체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임. 따라서 평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실천 지원은 유네스코의 이념 실현이라는 본연의 기능뿐만 아니라, 미래 한국사회의 교육 혁신 방향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임.

Ⅲ. 과학 분야

박범순

과학 문해력

- 시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하는 것처럼 과학의 기초적인 지식도 습득해야 한다는 ‘과학 문해력’(science literacy 또는 scientific literacy) 개념은 1950년대 말 냉전 대결이 심화하던 시기 미국에서 처음 나옴.
- 영국에서는 과학자와 시민 사이의 대화를 강조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1980년대에 들어 ‘대중의 과학 이해’(PUS: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라는 개념으로 정립되어 제시되었음. 과학에 대한 이해 증진 노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규교육을 넘어 전 연령과 전 사회 계층의 대중으로 확대해야 하고 과학자들은 소통의 기술을 익혀야 한다는 것임.
- 하지만 광우병 사태, GMO 파동 등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겪으면서 대중을 과학으로 계몽되어야 할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지식 생산의 중요한 협력자로 보고 신뢰 구축에 중점을 두는 과학과 사회의 ‘공진화’(co-evolution) 또는 과학지식의 ‘공동생산’(co-production) 개념이 나옴. 과학 문해력은 이렇듯 과학으로 인한 사회 변화를 이해하고 책임 있는 혁신을 추구할 역량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쓰이게 됨.
- 유네스코는 설립 초기부터 과학과 사회의 관계에 주목해 ‘Impact of Science on Society’란 잡지를 1992년까지 발간했고, 그 이후에는 유네스코 과학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해 옴. 또한 생명윤리와 인공지능 윤리가 제도적으로 연구되고 적용 되도록 권고를 제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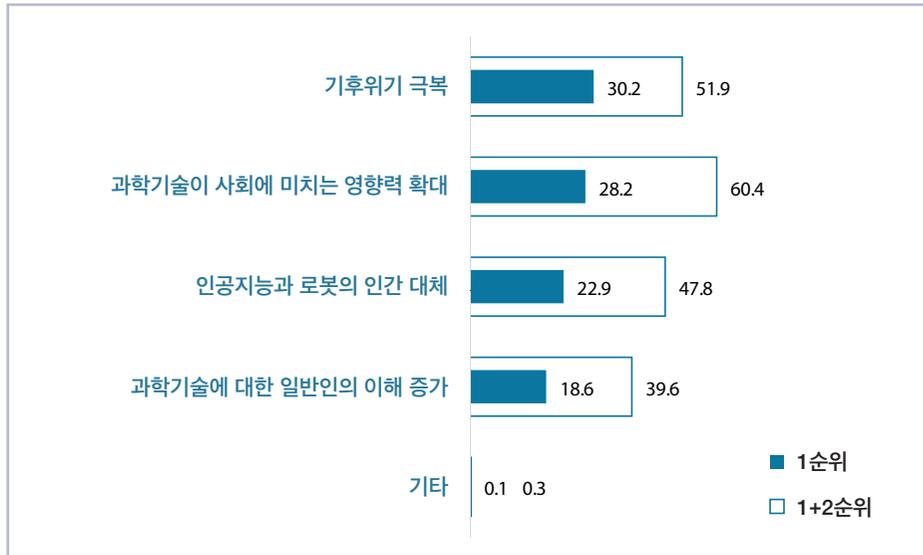
- 유네스코는 최근 ‘미래 문해력’(futures literacy)이라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둔 미래를 상상하고 논의할 역량개발을 강조하기 시작했음. 복수의 미래(futures)를 상정하면서, 국가마다 서로 다른 역사적·지리적·정치적·경제적 배경 아래 단선적이지 않고 독자적인 미래 논의를 권고함. 또한 한 사회에서도 여러 주체가 과학기술 중심의 결정론적 미래 담론에서 벗어나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함이 중요하다는 관점인데, 이는 과학 지식의 생산과 기술개발에서 시민참여와 신규 구축을 중요시하는 과학 문해력 개념과 일맥상통함.

1. 미래 변화 인식

가. 과학의 미래전망 (영역별 공통 설문조사)

- 기후위기, 사회변화, 인공지능
 - 과학 분야에서 영역별 공통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 기후위기 극복(30.2%), (2)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28.2%), (3) 인공지능과 로봇의 인간 대체(22.9%)의 순으로 과학기술에 관련된 중요한 이슈가 선택됨.
 - ‘기후위기 극복’을 과학기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택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기후위기가 미래에 핵심 문제라는 것과 함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해 보자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 연령별·지역별 차이보다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예컨대, ‘기후위기 극복’에서는 남자(26.1%), 여자(34.5%), ‘과학기술의 사회영향’에서는 남자(27.0%), 여자(29.5%), ‘인공지능과 로봇의 인간 대체’에서는 남자(27.2%), 여자(18.2%)로, 여성이 남성보다 기후위기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반대로 인공지능과 로봇에 관련해서는 남성이 더 큰 관심을 보임. 아래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이런 성별 차이는 과학 영역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남.
- 교육, 문화,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도 디지털 기술로 인한 변화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음.

그림 III-23. 한국사회의 영역별 미래_과학



Base : 전체, N=2,000, Unit : %, 순위응답

나. 과학과 사회의 관계 변화

○ 사회불평등

- 30년 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회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응답(38.9%)이, '해소될 것이다'는 응답(31.8%) 보다 많았음.
- '심화될 것이다'라는 의견은 여자(41.8%), 강원권(45.1%), 하위계층(45.8%)에서 특히 높았고, '해소될 것이다'라는 전망은 대학원 졸업자(39.9%)와 중상위계층(36.2%, 39.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음.
- 시민의 사회적 위치, 즉 소외되거나 주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과학기술의 변화를 위협으로 볼 가능성이 큼을 시사함.

○ 전문가와 일반시민 사이 대화/소통

- 30년 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전문가와 일반시민 간 대화나 소통이 '활성화될 것이다'(41.1%)라는 전망이 '어려워질 것이다'(24.4%)라는 전망보다 크게 우세하게 나타남. 다만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 사람도(34.5%) 많았음.

- 구체적으로 보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주·전라권(46.5%), 대학원 졸업(50.2%), 상위계층(60.7%)에서 특히 높았음.
-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대화와 소통이 더 필요하다는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그림 III-24. 30년 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불평등 문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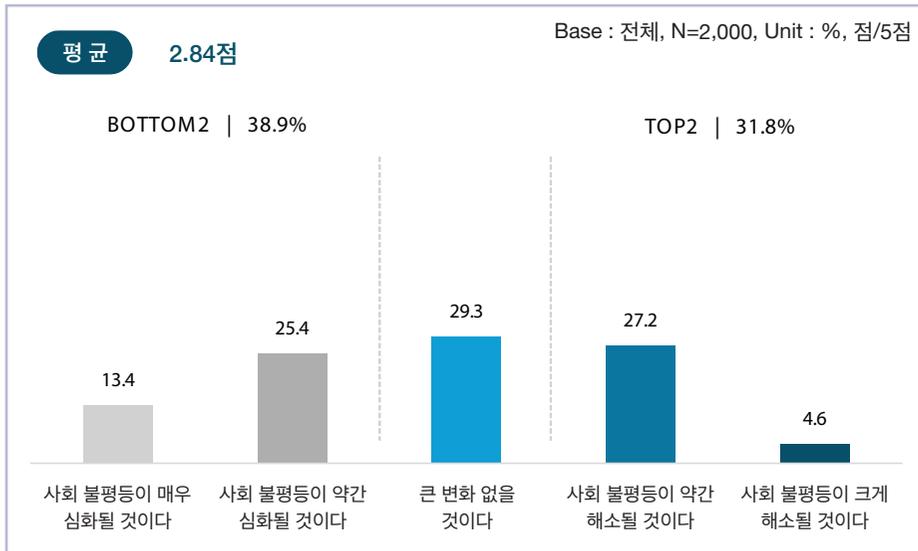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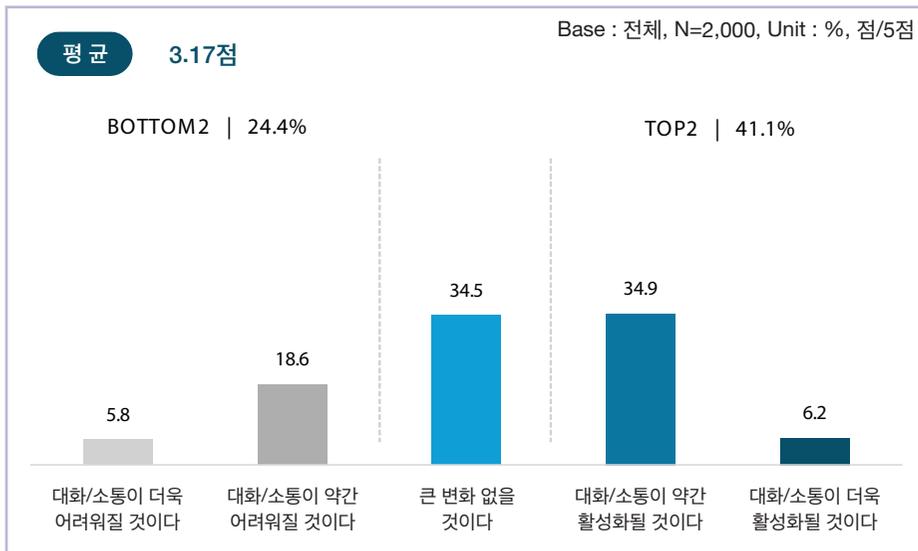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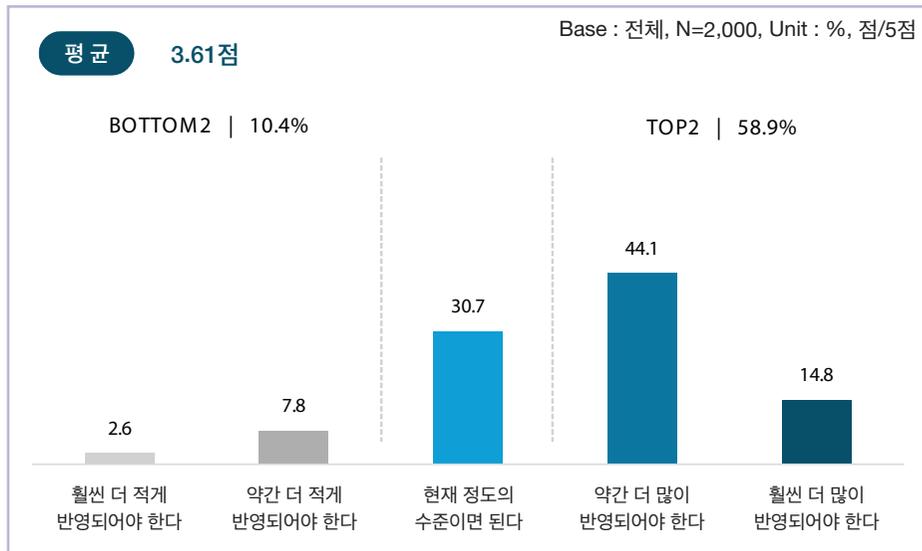
그림 III-25. 30년 뒤 과학기술의 발전이 전문가와 일반시민 사이 대화/소통에 미칠 영향



○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에 일반시민/시민단체의 목소리 반영

-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에 일반시민이나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58.9%)이 ‘적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10.4%) 더 월등히 높게 나옴.
- 특히 50대(64.6%), 제주·전라권(65.1%), 대학원 졸업(67.7%)에서 높았음.
- 이는 자기 주체적 목소리를 상대적으로 많이 내온 연령, 지역, 교육 계층에서 과학기술의 미래 논의의 참여에 더 관심이 많고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III-26. 30년 뒤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에 일반시민/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에 대한 인식



○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도

- 30년 뒤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경우가 56.8%로 ‘감소할 것’이란 응답은 9.8%보다 월등히 많았음.
- 특히 50대(64.6%), 제주·전라권(65.1%), 대학원 졸업(67.7%)에서 높았음.
- 이는 위의 항목과 비슷한 경향을 보임. 즉, 자기 주체적 목소리를 많이 내온 연령, 지역, 교육 계층에서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음.

그림 III-27. 30년 뒤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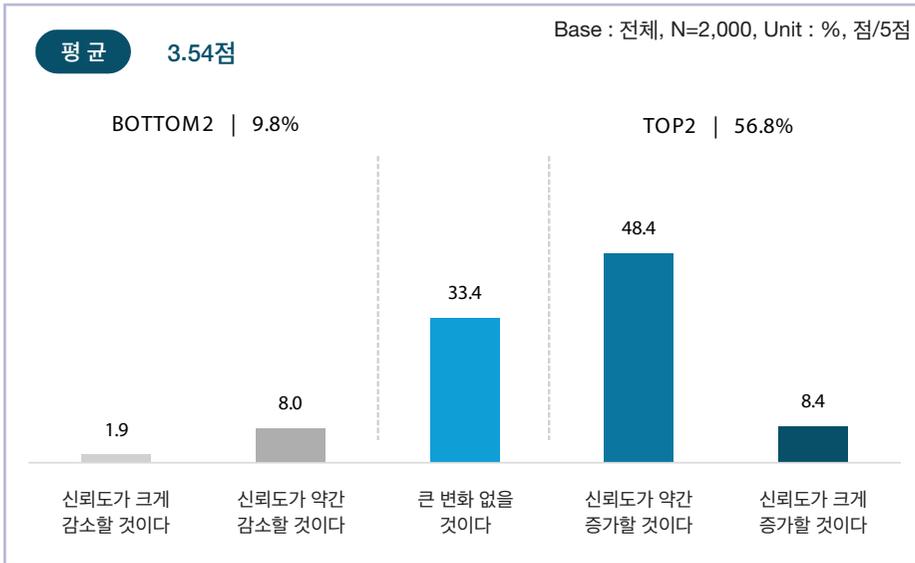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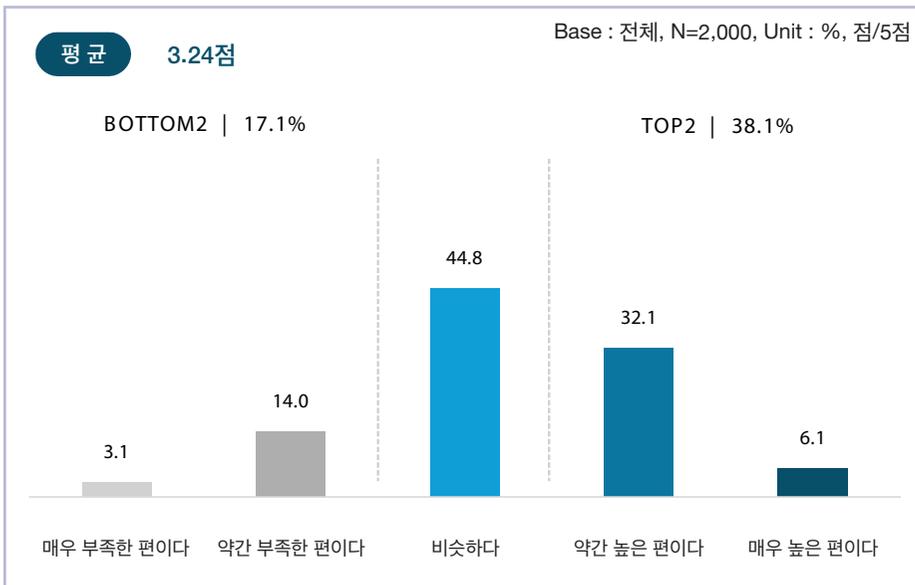


그림 III-28. 타인 대비 본인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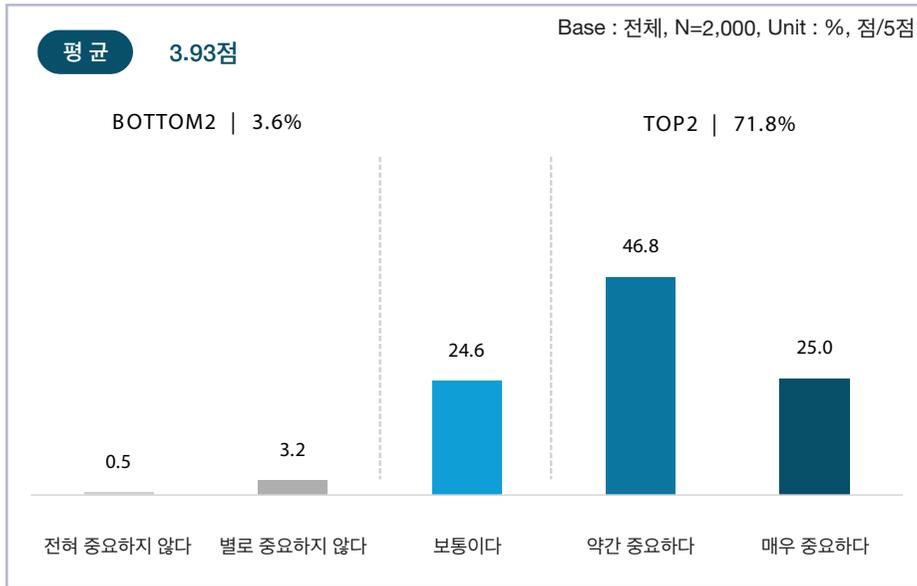
○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

-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높다’고 답한 사람(38.1%)이 ‘낮다’고 답한 사람(17.1%) 보다 상당히 많았음.
- ‘높다’는 응답은 특히 50대(64.6%), 제주·전라권(65.1%), 대학원 졸업(67.7%)에서 많았고, 이에 비해 ‘낮다’는 응답은 강원권(26.1%), 최하위계층(28.3%), 하위계층(25.1%)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남.
- 이는 위 항목들에서 보여준 경향과 일치함을 보여줌.

○ 과학 문해력과 미래 문해력

-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미래사회의 삶에 대한 이해에 ‘중요하다’는 응답은 71.8%로 월등히 높게 나타남. ‘보통이다’는 24.6%였으며, ‘중요하지 않다’는 3.6%로 소수였음.
- ‘중요하다’는 50대(79.7%), 대학원 졸업(85.4%)에서 특히 높았음.
- 이는 위 항목들에서 보여준 경향과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세밀한 해석이 필요함. 예를 들어, 2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중요하다’고 보는 응답이 64%에 그치고 30대에서도 68% 정도로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이는 청년층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미래 문해력의 중요한 요소로 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 문해력을 이미 상당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는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음. 남녀 성별 차이는 거의 없음. 흥미롭게도 최하위계층(66.5%)과 최상위계층(60.4%) 모두 다른 계층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임. 이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본인 삶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III-29. 미래사회의 삶에 대한 이해(미래 문해력)를 위한 과학기술 이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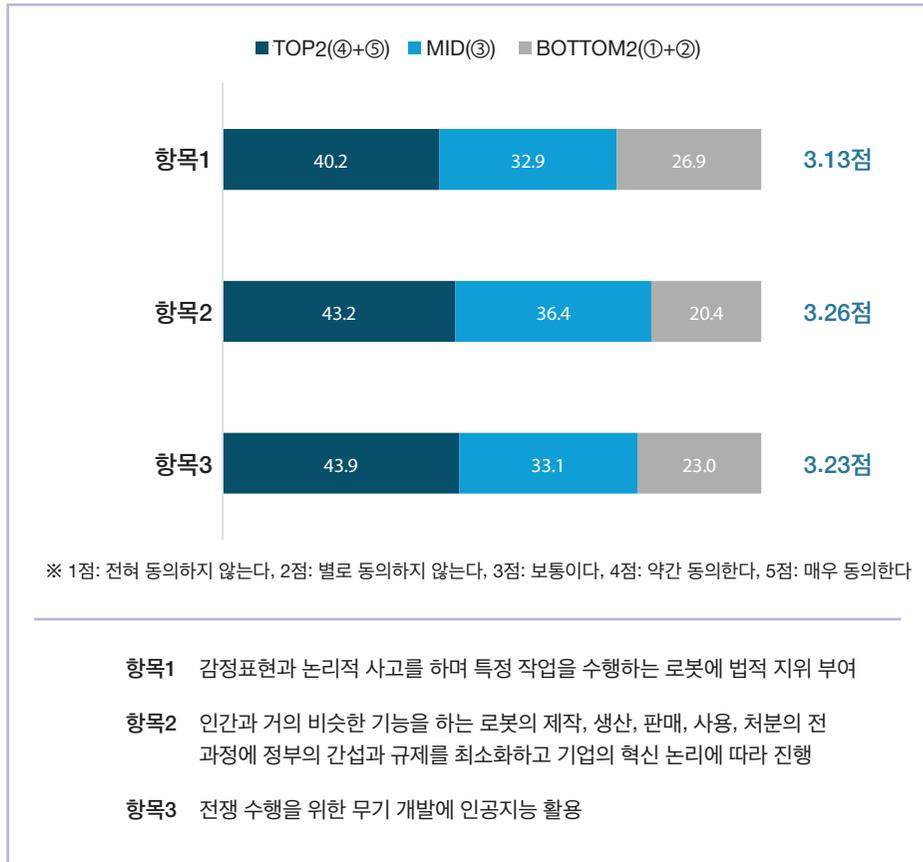


다. 특정 과학기술 항목별 동의도

○ 인공지능 로봇

-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동의는 40.2%~43.9% 수준이었음.
- ‘감정표현과 논리적 사고를 하며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에 법적 지위 부여’에 대한 동의는 40.2%, ‘인간과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 로봇의 제작, 생산, 판매, 사용, 처분의 전 과정에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혁신 논리에 따라 진행’에 대한 동의는 43.2%, ‘전쟁 수행을 위한 무기 개발에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동의는 43.9%로 조사됨.
- 각 항목에서 성별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남. 예를 들어, ‘법적 지위 부여’에 대해서 남자(44.5%), 여자(35.7%), ‘규제 최소화’에 대해선 남자(47.5%), 여자(38.7%), ‘무기 개발 활용’에 대해선 남자(48.4%), 여자(39.2%)로 차이를 보임. 이에 비해 연령별, 지역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음.
- 이는 인공지능 로봇의 개발자·사용자·판매자의 성별 차이가 있음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그림 III-30. 인공지능 로봇 개발 및 이용 관련 항목별 동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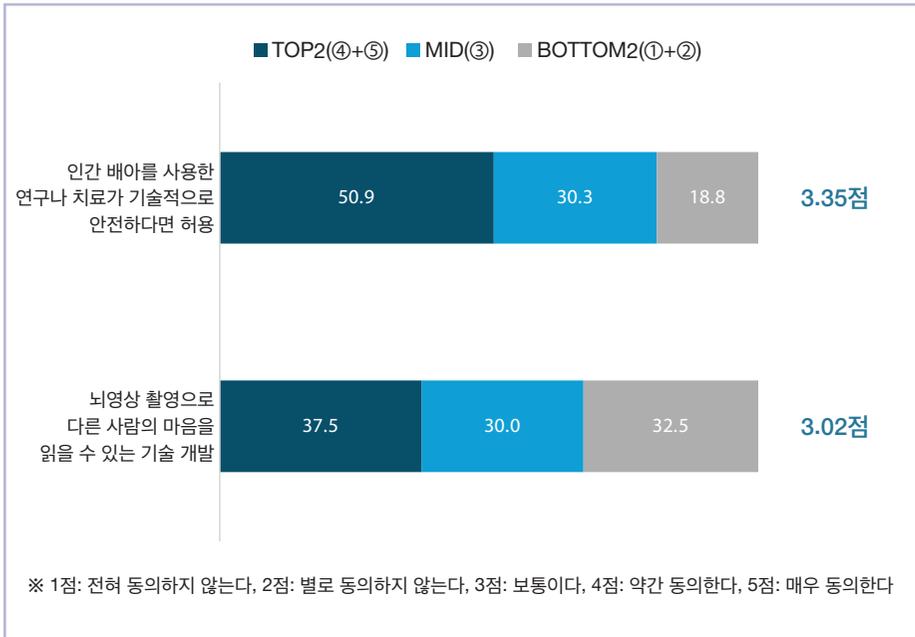
Base : 전체, N=2,000, Unit : %, 점/5점

○ 첨단 바이오기술

- 첨단 바이오기술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한 이슈 중 ‘인간 배아를 사용한 연구나 치료가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면 허용’에 대한 동의는 50.9%로 나타났으며, ‘뇌영상 촬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대한 동의 수준은 37.5%로 조사됨.
- 두 항목 모두에서 성별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남. 인간배아 연구에 대해서는 남자(58.6%), 여자(42.7%)로 나왔고, 뇌영상 마음 읽기 기술에 대해선 남자(43.7%), 여자(31.1%)로 조사됨. 연령별, 지역별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 이는 인공지능 로봇기술과 마찬가지로, 개발자·사용자·판매자의 성별 차이가 있음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인간배아 연구에 대해 상대적으로 허용에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이유로 이미 이 분야 연구 진행에 친숙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이에 비해 뇌영상 마음 읽기 기술은 좀 더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동의 수준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음.

그림III-31. 첨단 바이오기술 개발 및 이용 관련 항목별 동의도



Base : 전체, N=2,000, Unit : %, 점/5점

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 분야에 대한 시사점

가. 지속적 접근: 과학 분야에서의 변화는 때론 급격히 일어나고 파장이 클 수 있기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분석하여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함.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유네스코는 설립 초기부터 과학기술이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과학교육, 과학문화를 전파하는 작업을 해왔고, 괄목할 만한 성과도 있었음.
- 1990년대 이후 유엔이 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자, 유네스코는 정기적인 과학보고서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이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이 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어떻게 활용되는지 조사 해옴. 이런 맥락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에서 과학기술 혁신이 핵심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음.
- (에너지 소비 증가) 그러나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의 연계에 대한 낙관적인 희망은 팬데믹 상황에서 정점을 찍었음.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도 에너지 소비는 더 증가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이 증가해도 화석연료의 사용은 더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남.
- (불평등, 양극화 확대) 디지털 전환이 기회의 확대를 가져온 점이 있지만, 부의 양극화를 심화한 측면도 있음. 최근 배달 노동자의 열악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작업환경 상황이 그런 단면을 잘 보여줌.
- (설문조사 함의) 한국 사회는 과학기술로 인한 사회변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도 증가, 과학 문해력의 중요성, 전문가와의 소통 증가 등). 하지만 사회불평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더 많은 점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임. 그리고 과학기술에 기인한 사회변화에 더 민감한 주변화된 계층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필요함.
- (Post-SDGs)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Post-SDGs 전략을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제 설정에 기여해야 함. 한국에서의 경험, 특히 신기루처럼 왔다가 지나간 제4차산업혁명 담론과 탈원전 논란, 그린뉴딜 정책 등은 의제 설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임.

○ 생명윤리

- 유네스코는 생명윤리와 관련해선 성찰적인 자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해옴. 예컨대, 1970년대부터 생명윤리의 국제 규범 제정을 위한 논의를 이끌어 1997년 ‘인간 게놈과 인권 보편선언’을 채택하였고, 2005년에는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을 채택했음.
- 유네스코는 생명윤리를 보편적 인권의 신장에 매우 중요한 축으로 보고 강조해왔음. 이에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 1993), 정부간생명윤리위원회(IGBC, 1998),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 1998) 등을 설립해 제도적·학문적으로 생명윤리 분야의 성장에 크게 기여함.
- (인간배아 연구에 대한 설문조사 함의) ‘안전하다면’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인간배아의 연구 및 치료 사용에 대해 호의적인 의견이 많았다는 것은 약 20년전 황우석 사건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추가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음.
- (뇌영상으로 마음 읽기 기술에 대한 설문조사 함의) 이 신기술에 대한 윤리적 이슈는 아직 체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동의 수준이 높지 않은 편인데, 많은 이가 관망하자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지속적인 생명윤리 조사연구) 두 가지 첨단바이오기술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함의는 남녀 성별 차이임. 여성이 훨씬 더 민감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임. 이처럼 좀 더 세밀하게, 여러 첨단바이오기술의 윤리적 측면에 대해 지속적인 추적 조사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실행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런 점을 의제화해서 다른 나라와 공유할 수 있을 것임. 생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나라마다 다르고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주제임. 한국에서 생명에 대한 관점, 윤리의식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유네스코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행할 수 있음.

○ 인공지능

- 유네스코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여러 혜택에 주목하며, 특히 인공지능을 경제발전과 교육기회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할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음.
- 그러나 인공지능의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하지 않고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

음을 지적함. 예를 들어,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특히 딥페이크 등 여성이 겪는 상황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언급함: “편향된 분석을 피해 전 인류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는 기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으로 여성이 마주하는 상황을 시급히 재조정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unesco.org/en/artificial-intelligence>)

- 2021년 유네스코는 총회에서 「인공지능 윤리 권고(UNESCO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인공지능 위협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촉구함. 이는 다른 국가에 앞서서 인공지능의 윤리적 규범 틀을 제시한 첫 번째 사례임.
- (설문조사 함의) 본 설문조사에서는 인공지능이 제기할 다양한 위협이나 윤리적 이슈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개발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동의 여부에서 남성과 여성이 뚜렷한 차이를 보임. 이에 비해 연령별·지역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음.
- (지속적인 인공지능 윤리 조사연구) 인공지능 개발에 대해 성별 관점 차이가 있는 것은 한국에 국한된 상황일 수도 있음. 이를 포함해, 인공지능 윤리의 광범위한 문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의제화하고 유네스코 회원국들과 함께 다루는 노력을 경주해야 함. 말하자면, 「인공지능 윤리 권고」의 이행 보고 시 한국의 상황과 고민을 담은 아이템이 포함되어 공유될 수 있도록 의제 설정을 할 필요가 있음. 이는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를 통해 가능한 것임.

그림 III-32.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소개된 인공지능 윤리

Ethics of AI

The rapid rise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created **many opportunities globally**. However, these rapid changes also raise **profound ethical concerns**. These arise from the potential AI systems have to **embed biases**, contribute to **climate degradation**, **threaten human rights** and more. Such risks associated with AI have already begun to **compound on top of existing inequalities**, resulting in further harm to already **marginalised groups**.

To correct this, the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was adopted by acclamation by 193 Member States in 2021.



UNESCO

출처: <https://www.unesco.org/en/artificial-intelligence>

○ 다른 첨단기술의 윤리

- (합성생물학) 바이오 중심의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합성생물학은 ‘극단적 유전자변형기술’이라고 불릴 정도로 생명현상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해줌. 현재 국제기구와(CBD: 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OECD 등) 국가 규제기관에서 안전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생명윤리 관점은 크게 부족한 편임. 또한 경제질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잠재적 희생자에 대한 고려도 부족함.
- 유네스코는 합성생물학의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으며, 유네스코한 국위원회 역시 거의 다루고 있지 않음.
- (양자 컴퓨팅) 이 기술은 최근에 개발된 것으로 2024년 9월 유네스코의 생명윤리 기구(IBC, IGBC, COMEST)의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음. 이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의 윤리적 측면과 형평성의 문제, 젠더 이슈 등을 다룰 필요가 있음.
- (제안) 합성생물학과 양자 컴퓨팅과 같은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윤리적 이슈를 다루기 위해, 유네스코 조직의 강점인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문가와 비전문가, 일반 시민이 만나 대화할 장을 마련하고 의제화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음.

나. 통합적 접근: 과학기술에 대한 미래전망에서 나온 이슈들은 교육,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변화와 연계해서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 있음.

○ 기후위기, 디지털, 교육

- 2021년에 유네스코가 발간한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약칭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서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강조했듯이, “인류의 미래는 지구의 미래에 달려있고 이 둘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그 경로를 바꾸기 위해 시급한 행동이 필요”함. 기후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며, 그 책임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는 인류 생존을 위한 핵심적인 질문임.
- 최근 디지털 기술의 교육적 활용이 큰 관심을 끌고 있음. 지나친 관심과 기대, 그리고 이에 기대서 확장된 상업용 과대선전의 물거품을 제거하면,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즉, 국가기관과 사회단체에서는 검토와 검증 과정을 통해 증거 기반의 디지털 기술의 교육적 확산을 도울 수 있음. 또한 디지털 기술로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논의를 교실에서 공유할 수 있을 것임.

- (디지털 교육 관련 한국의 경험과 교훈)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국 사회가 겪은 시행착오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잘 정리하고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만들어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임. 즉, 전 세계의 디지털 산업을 주도하는 빅테크와는 별개로 그 지역의 사정과 문화와 교육 수준에 맞는 기술개발이 일어날 수 있음과 활용 경험도 공유하자는 것을 의제로 제안할 수 있을 것임.

○ 기후위기와 문화유산

-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통합 관리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서 서구 문화 중심에서 지역 문화 중심, 즉 사람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문화로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관련하여, 기후위기라는 다학제적 주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도 논의되고 있음.
- 특히, 기후위기는 인권의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키우자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임.
-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한 운동도 함께 일어나고 있음.
- (기후위기를 고려한 통합적 문화유산 정책) 여러 나라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통합적인 문화유산 정책을 세우는 노력을 서로 나누고 전파하자는 아이디어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주요 의제로 제안할 수 있겠음.

○ 디지털과 커뮤니케이션

- 이번 영역별 공통 설문조사에도 나왔듯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뽑힌 것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소통 방식의 다변화”임.
- 여기에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기에, 국가기관과 사회단체는 면밀히 연구하고 조사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함.
-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확산으로 인한 한국 사회 변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국 사회의 경험과 교훈을 잘 정리해 다른 국가와 공유하고 그 가운데 새로운 의제를 발굴할 수 있을 것임.

IV. 문화 분야

한 준

1. 미래 변화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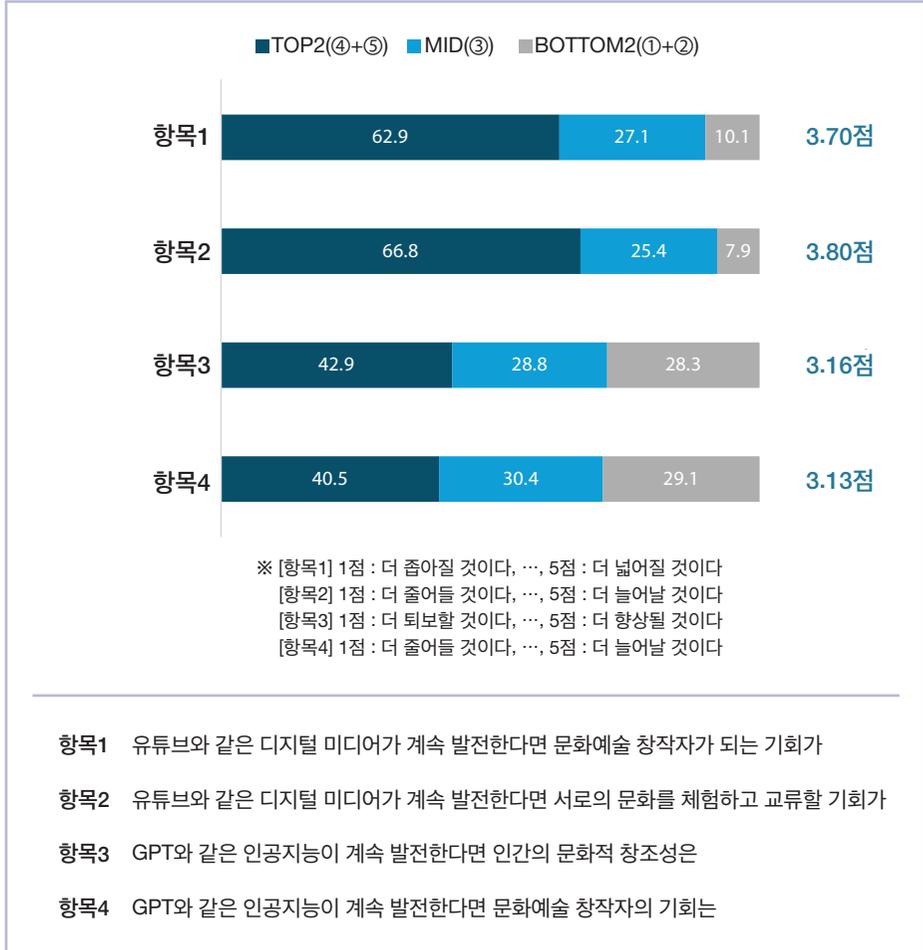
가.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30년 뒤 문화의 변화

- 20세기 후반 시작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은 한국 경제의 고도화를 이끌었을 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걸친 사회문화적 변화를 가져왔음.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과 2010년대 후반 이후의 생성형(GPT)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문화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었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디지털 플랫폼은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보편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문화의 생산과 매개, 소비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 변화는 향후 지속될 것임. 전 세계적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플랫폼의 더욱 확장된 영향력은 30년 이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변화가 함의하는 바에 대해서는 한편에서는 문화적 격차의 축소와 문화적 측면에서 사회관계의 수평화에 따른 전반적인 문화의 민주화라는 긍정적 변화 가능성에 대한 예상이 있음. 다른 한편에서는 기득권의 누적적 이득과 플랫폼으로의 수익과 권력의 집중을 통한 새로운 격차의 확대라는 부정적 변화 가능성에 대한 예상이 동시에 제시됨.

- GPT 인공지능의 가속적 발전은 10년 이내에 인간이 기계에 추월당하는 특이점(singularity)에 도달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이는 30년 이내에 인간과 기계의 경쟁에서 문화 생산자로서 인간의 지위에 대한 기계의 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함. 문화 창조 및 생산에서 인간과 기계의 경쟁과 대립이 전개될지, 아니면 협력이 가능할지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예상됨.
- 디지털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 확대 및 GPT 인공지능의 발달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응답에서는 디지털화에 따른 격차 확대나 권력 집중, 기계에 의한 인간의 대체와 같은 부정적 가능성의 실현에 대한 전망보다는 격차의 축소나 기회의 확대와 같은 긍정적 가능성의 실현에 대한 전망이 보다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음.
-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가 계속 발전한다면 문화예술 창작자가 되는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62.9%)이 좁아질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10.1%)보다 월등히 우세하며, 또한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교류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66.8%)이 줄어들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7.9%)에 비해 역시 압도적으로 우세함.
-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문화예술 창작자의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의 비율은 50대(65%)와 대학원졸 이상(74.1%)에서 가장 높고, 30대(60.9%)와 고졸 이하(58.5%)에서 가장 낮음. 또한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교류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의 비율은 40대(69.2%)와 대학원졸 이상(79.4%)에서 가장 높고, 30대(63.7%)와 고졸 이하(60.9%)에서 가장 낮음.
- GPT와 같은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한다면 인간의 문화적 창조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42.9%)이 창조성이 퇴보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28.3%)보다 우세하며, 또한 인공지능 발전으로 문화예술 창작자의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40.5%)이 줄어들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29.1%)보다 우세함. 인공지능 발전이 문화예술 창작의 기회와 문화적 창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디지털 미디어 발전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전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GPT와 같은 인공지능 발전이 문화적 창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은 남성(47.7%)과 대학원졸 이상(47%)에서 가장 높으며, 여성(37.8%)과 고졸 이하(40.1%)에서 가장 낮음. 또한 인공지능 발전이 문화예술 창작자의 기회를 늘릴 것이라는 긍

정적 전망 또한 남성(44%)과 대학원졸 이상(47.4%)에서 가장 높고, 여성(36.7%)과 고졸 이하(39.8%)에서 가장 낮음.

그림IV-33. 디지털 미디어와 GPT 인공지능의 문화에 영향



Base : 전체, N=2,000, Unit : %, 점/5점

나. 글로벌화와 다문화에 따른 30년 뒤 문화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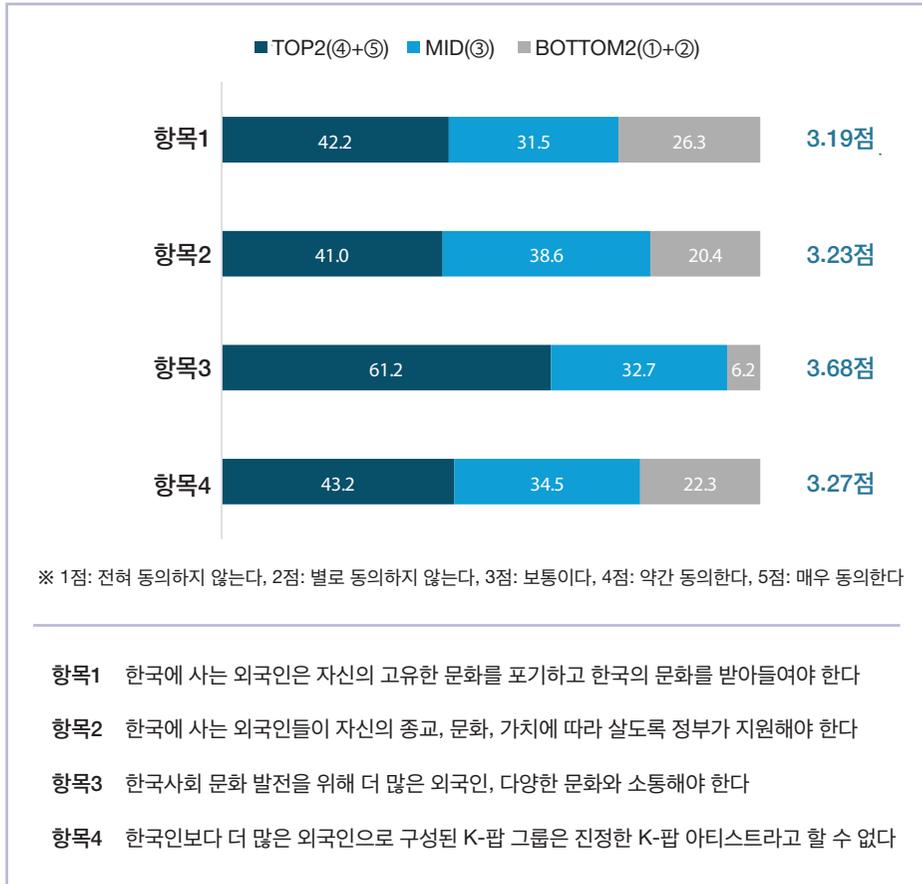
- 20세기 후반 냉전의 종식과 디지털화의 급속한 진전에 의해 가속화된 글로벌화는 전례 없는 소통과 이동의 증가를 가져왔음. 그에 따라 상이한 문화들 간의 교류와 소통,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이 동시에 높아져 왔음.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글로벌화가 지체 혹은 역전되기도 했지만, 글로벌화는 궁극적으로 다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글로벌화가 30년 뒤의 문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문명의 충돌이라는 비관적 전망, 수렴을 통한 글로벌 문화의 등장이라는 전망,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 간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한 혼종화의 전망과 같은 다양한 전망들이 제시되어 왔음. 향후 30년 동안 현실에서의 변화는 이러한 전망들이 혼재되어 나타날 것으로 볼 수 있음.
- 글로벌화의 결과 한국의 문화는 글로벌 영향력과 민족적 전통 간 긴장이 높아졌으며, 향후 30년간 이러한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긴장을 반영해서 향후 30년 뒤의 한국의 다문화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은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요컨대 사안에 따라 글로벌화 혹은 민족화의 입장을 보이고 있음.
 - 글로벌화의 경향을 보이는 응답으로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종교, 문화, 가치에 따라 살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41%)이 반대하는 비율(20.4%)에 비해 우세함. 또한 한국의 사회 문화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외국인, 다양한 문화와 소통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61.2%)이 반대하는 비율(6.2%)에 크게 우세함.
 - 반대로 민족화의 입장을 보여주는 응답으로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포기하고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42.2%)이 반대하는 비율(26.3%)에 비해 우세함. 또한 한국인보다 더 많은 외국인으로 구성된 K-팝 그룹은 진정한 K-팝 아티스트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43.2%)이 반대하는 비율(22.3%)보다 우세함.
 - 한국 문화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외국인, 다양한 문화와 소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비율은 40대(64%)와 대학원졸 이상(76.9%)에서 가장 높고, 30대(56.2%)와 고졸 이하(58.1%)에서 가장 낮음. 또한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포기하고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비율 역시 40대(46.1%)와 대학원졸 이상(48.5%)이 가장 높고, 20대 이하(37.1%)와 고졸 이하(37.7%)가 가장 낮

으며, 한국인보다 더 많은 외국인으로 구성된 K-팝 그룹을 진정한 K-아티스트로 볼 수 없다는 비율 역시 40대(46.3%)가 가장 높고, 20대(39.4%)가 가장 낮음. 글로벌화와 민족화의 이율배반적 태도가 40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그림 IV-34. 글로벌화와 다문화 관점에서의 한국사회 문화에 대한 항목별 동의도



Base : 전체, N=2,000, Unit : %, 점/5점

다. 30년 뒤 한국사회의 문화에 대한 예상

- 20세기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발전의 경로를 강력하게 규정했던 분단은 21세기에 도 지속되고 있음. 하지만 2050년까지 한반도에서 분단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 단하기 어려우며, 그 변화의 파장 또한 가늠하기 쉽지 않음. 만약 분단이 종식되고 통

일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의 문화에는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며, 가장 큰 변화는 이질화된 남북한의 문화가 공존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그로 인한 다양한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분단과 통일의 문화적 영향을 다루지는 않음.

- 반면 현재 한국사회의 추세를 따라가면 예측이 가능한 부분도 많이 있음. 대표적인 것인 인구라고 할 수 있음. 근대화와 경제성장 시기의 급속한 인구증가가 끝나고 2000년대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가 시작되고 탈성장사회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향후 인구감소는 한국의 문화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함. 특히 인구감소로 인한 한국인의 생물학적(gene) 감소와 한국의 글로벌 매력 증가에 따른 한국의 문화적(meme) 확산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그 결과 한국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수립이 시급하게 필요함.
- 한국 사회의 30년 뒤의 문화에 대한 예상은 다양화와 K-문화에 대한 관심 측면에서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높은 반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비관적 영향을 우려하는 경향이 나타남.
 - 저출산의 문화에 대한 영향으로 인구 감소의 결과 한국어가 소수 언어가 되어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비율(45.9%)이 그렇지 않다는 비율(26.9%)에 비해 우세함. 특히 최상위 계층(73.5%)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한국어 소멸의 비관적 전망이 두드러짐.
 - 문화의 다양화에 따라 한국어 외에도 여러 언어를 사용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54%)이 그렇지 않다는 비율(14.2%)에 비해 크게 우세하며, 문화의 다양성으로 한국 문화의 잠재력과 창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 비율(55.5%)이 그렇지 않다는 비율(10.4%)에 비해 크게 우세함. 다중 언어 사용의 전망은 최상위층(69.5%)에서 두드러지며, 문화의 잠재력과 창의성 제고 전망은 50대(61.8%)와 대학원졸 이상(61.4%)에서 두드러짐.
 - K-대중문화에 대한 글로벌한 관심과 인기가 지속되거나 더 높아진다는 예상에 동의하는 비율(58%)은 반대하는 비율(8.4%)에 비해 크게 우세함. 동의하는 비율은 특히 중간계층(62.5%)과 대학원졸 이상(61%), 50대(60.1%)에서 높은 편이고, 반대로 20대 이하(54.8%)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그림IV-35. 30년 뒤 한국사회 문화에 대한 예측별 동의도



Base : 전체, N=2,000, Unit : %, 점/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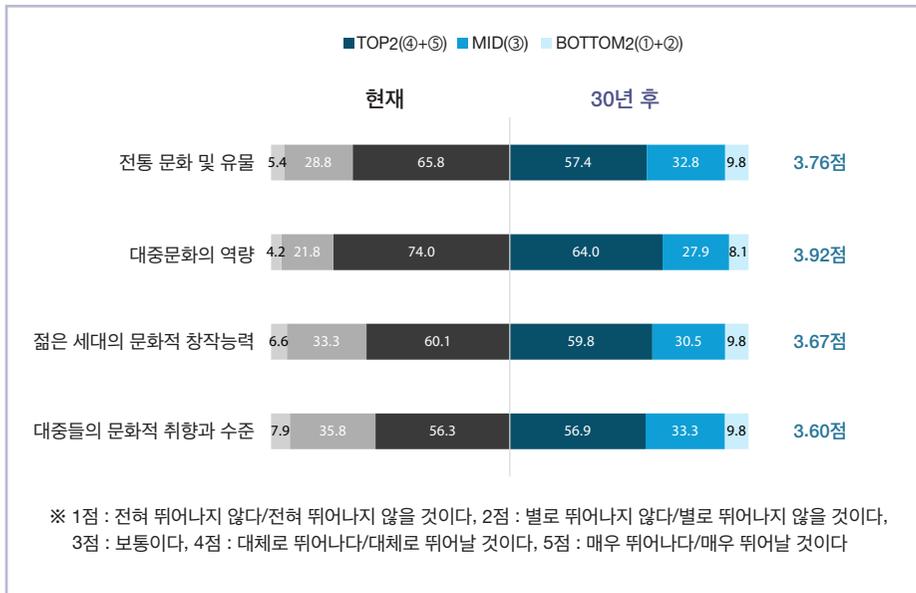
라. 현재 및 30년 뒤 한국 문화의 역량과 수준 평가

- 한국의 문화적 수준과 역량에 대한 평가를 현재와 30년 뒤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 모든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30년 뒤에 대한 평가는 대중의 문화적 취향과 수준을 제외하고 대부분 현재에 비해 뛰어나다는 비율이 낮게 나타남.
- 전통 문화 및 유물에 대한 한국의 문화적 수준과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는 현재 (65.8%)가 30년 뒤(57.4%)에 비해 더 높으며, 대중문화의 역량에 대한 평가 역시 현재 (74%)가 30년 뒤(64%)에 비해 더 높음. 젊은 세대의 문화적 창작능력 평가 또한 현재

(60.1%)가 30년 뒤(59.8%)에 비해 근소하게 높음. 반면 대중들의 문화적 취향과 수준 평가는 30년 뒤(56.9%)가 현재(56.3%)에 비해 근소하게 높음.

- 현재의 문화 역량과 수준에 대한 평가 중에서는 대중문화의 역량이 뛰어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전통 문화 및 유물, 젊은 세대의 문화적 창작 능력, 대중들의 문화적 취향과 수준의 순이었음.
- 30년 뒤의 문화 역량과 수준에 대한 평가 중에서도 대중문화의 역량이 뛰어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젊은 세대의 문화적 창작 능력, 전통 문화 및 유물, 대중들의 문화적 취향과 수준의 순이었음.
- 전통문화 및 유물의 뛰어난에 대해 가장 높게 동의한 것은 50대 이상(현재 67.9%, 30년 뒤 57.6%)과 최상위 계층(현재 92.7%, 30년 뒤 63.5%)인 반면, 가장 동의가 낮은 것은 20대 이하(현재 63.6%, 30년 뒤 53.2%)와 최하위계층(현재 59.9%, 30년 뒤 51.4%)임.

그림IV-36. 현재 및 30년 뒤 한국의 문화 역량 및 수준 평가



Base : 전체, N=2,000, Unit : %, 점/5점

- 대중문화의 역량의 뛰어난에 대해 가장 높게 동의한 것은 50대 이상(현재 79.1%, 30년 뒤 69.1%)과 중간계층(현재 76.5%, 30년 뒤 68.5%)이며, 가장 동의가 낮은 것은 20

대 이하(현재 69%, 30년 뒤 61.5%)와 최상위계층(현재 58.9%, 30년 뒤 44.3%)임. 젊은 세대의 문화적 창작능력의 뛰어남 역시 가장 동의가 높은 것은 50대 이상(현재 65.2%, 30년 뒤 67.6%)과 중간계층(현재 63.8%, 30년 뒤 64%)이며, 가장 동의가 낮은 것은 20대(현재 54%, 30년 뒤 53%)와 최상위계층(현재 51.7%, 30년 뒤 44.3%)임.

- 대중들의 문화적 취향과 수준의 뛰어남에 대한 동의가 가장 높은 것은 50대(현재 61.1%, 30년 뒤 63.6%)이며 동의가 가장 낮은 것은 20대 이하(현재 47.6%, 30년 뒤 46.5%)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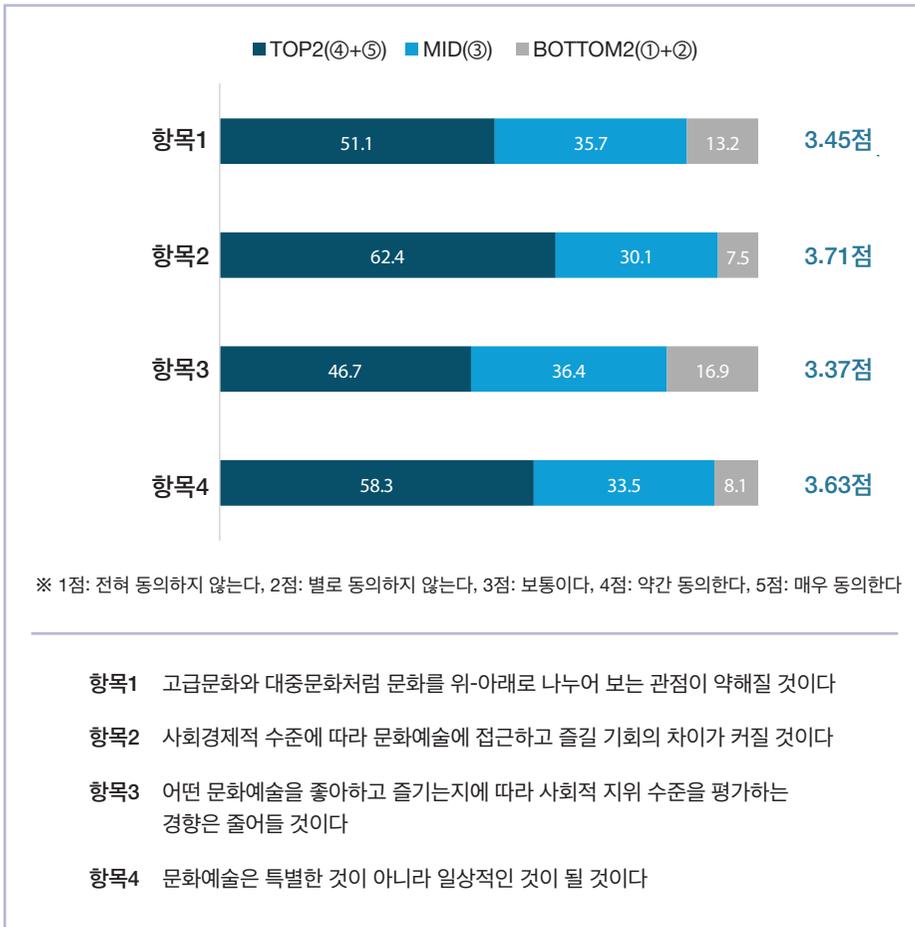
마. 30년 뒤 한국의 문화예술 취향과 소비 변화 전망

-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를 구분하고 고급문화를 숭상하는 반면 대중문화를 낮게 보는 문화적 위계의 존재와, 상층과 하층의 계급적 위계가 이러한 문화적 위계의 구분과 대응하는 현상, 즉 상층계급이 고급문화를 선호하고 하층계급이 대중문화를 선호하는 것은 근대 문화예술의 일반화된 현상으로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지속되었음. 하지만 20세기 후반 서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도전이 문화 민주주의와 평등주의, 탈위계주의 등의 명칭으로 계속되었음. 여기에 덧붙여 인종이나 민족에 따른 위계, 서구와 비서구 문화의 위계 역시 20세기 후반 이후 정체성의 정치 속에서 도전받으면서 문화적 위계 전반이 약화되는 변화가 나타났음.
- 한국에서 문화예술의 취향과 소비가 30년 뒤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문화적 위계가 약화될 것이며, 문화예술이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적인 것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동시에 문화예술을 접하고 즐길 기회의 차이가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커질 것으로 전망함.
-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처럼 문화를 위-아래로 나누어 보는 관점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51.1%)이 반대하는 비율(13.2%)에 비해 우세하며, 어떤 문화예술을 좋아하고 즐기는지에 따라 사회적 지위 수준을 평가하는 경향이 줄어들 것이다에 동의하는 비율(46.7%) 또한 반대하는 비율(16.9%)에 비해 우세함.
- 이처럼 문화예술 자체의 위계 및 문화예술 취향에 따른 사회적 위계 구분이 약화되

는 문화적 탈위계주의는 서구에서 20세기 후반에 시작된 경향이며, 한국에서도 2000년대 들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2050년대에는 이러한 탈위계화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문화예술이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적인 것이 될 것이다에 동의하는 비율(58.3%)이 반대하는 비율(8.1%)에 비해 우세하게 나타남. 다만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문화예술에 접근하고 즐길 기회의 차이가 커질 것이다에 동의하는 비율(62.4%)이 반대하는 비율(7.5%)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함.

그림IV-37. 30년 뒤 한국의 문화예술 취향/소비 변화에 대한 항목별 동의도



Base : 전체, N=2,000, Unit : %, 점/5점

- 30년 뒤에 고급/대중 문화의 위계적 구분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대학원졸 이상(60.2%)이며, 가장 낮은 것은 고졸 이하(48.7%)임. 또한 문화예술 취향에 따라 사회적 지위 수준을 평가하는 경향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도 대학원졸 이상(60.1%)이며 가장 낮은 것은 고졸 이하(45%)임.
- 30년 뒤에 문화예술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대학원졸 이상(66.3%)이며 가장 낮은 것은 고졸 이하(56.6%)임. 또한 30년 뒤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문화예술에 접근하고 즐길 기회의 차이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대학원졸 이상(60.1%)이며 가장 낮은 것은 고졸 이하(45%)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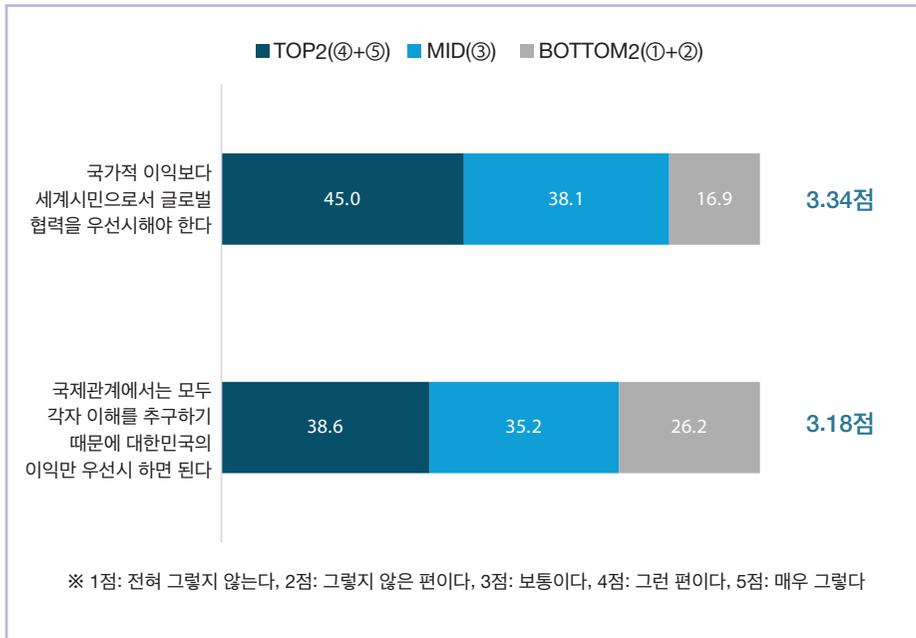
바.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의견

- 글로벌 경제위기와 팬데믹을 거치면서 21세기초까지 거침없이 진행되었던 글로벌화의 반작용으로 지역별 경제의 블록화와 민족주의의 재등장이 나타나고 있음. 동아시아에서도 중국의 보수화에 따른 동북공정의 진행과 일본의 보수화와 재무장 등 글로벌화에 역행하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인들의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의견은 향후 30년 뒤의 미래를 가늠하는 데 중요함.
- 한국사회에서 글로벌화는 20세기말 급속한 경제성장 이후 OECD 가입과 IMF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스탠다드의 강조 속에서 2000년대 들어 빠르게 진행되었음. 또한 2010년대 이후 대중문화의 글로벌 인기로 힘입어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강해지면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 및 국민들의 자존감 또한 크게 상승했음. 스스로를 선진국민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 속에서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관점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국가적 이익을 우선시하기보다(민족주의) 세계시민으로서 글로벌 협력을 우선시해야 한다(세계시민주의)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45%)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16.9%)에 비해 우세함. 하지만 동시에 국제관계에서는 모두 각자 이해를 추구하

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익만 우선시하면 된다(민족주의)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38.6%)도 동의하지 않는 비율(26.2%)에 비해 우세함. 따라서 아직까지 한국에서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는 서로 경합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음.

- 국가적 이익보다 세계시민으로서 글로벌 협력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세계시민주의 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최상위계층(67.8%)이며 반대로 가장 낮은 것은 최하위계층(35.6%)이다. 또한 국제관계에서는 모두 각자 이해를 추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익만 우선시하면 된다는 민족주의 동의 비율 역시 가장 높은 것은 최상위계층(60.4%)이며 반대로 가장 낮은 것은 하위계층(33.7%)이다. 최상위계층이 세계시민주의와 민족주의에 모두 동의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들 집단에서 서초 상층하는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IV-38. 민족주의/세계시민 관련 주장에 대한 의견



Base : 전체, N=2,000, Unit : %, 점/5점

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 분야에 대한 시사점

가. 디지털 플랫폼의 약진과 인공지능의 역할 강화에 대한 대응

- 30년 뒤에 디지털 미디어와 인공지능의 발전이 문화예술 창작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가져올 것이며, 창의력의 증진과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우세하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플랫폼과 인공지능의 발전이 문화와 예술 창작 및 생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큼.
-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문화 생산과 확산이 기존 문화예술계의 게이트키퍼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과 함께 동시에 플랫폼의 주도권이 강화되면서 개인 크리에이터들은 기술적으로나 시장교섭력 측면에서 취약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대응해서 크리에이터들을 지원 및 보호, 교육하는 활동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임.
-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은 플랫폼과의 관계에서 취약할 뿐 아니라 미디어 이용자들로부터의 개인적 공격이나 혐오표현 등과 같은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음. 반면 이들에 대한 플랫폼이나 공권력의 보호는 제도적 미비 때문에 활발하지 못한 형편임.
-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문화예술 크리에이터들 간의 교류와 권리 보호를 위한 자체적 노력을 위해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지원과 교육,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의 안전과 권리 보호의 가이드라인 제정 등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협력할 수 있을 것임. 유튜브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크리에이터의 인구당 비중이 가장 높은 한국에서 이러한 노력은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문화예술 크리에이터들 간의 교류와 권리 보호를 위한 자체적 노력을 위해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지원과 교육,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의 안전과 권리 보호의 가이드라인 제정 등에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앞장설 수 있을 것임. 유튜브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크리에이터의 인구당 비중이 가장 높은 한국에서 이러한 노력은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 특히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크리에이터들이 2-30대 청년들인

점을 고려한다면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향후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인 동시에 유네스코 전체 차원에서 중요한 쟁점을 제기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기계가 인간을 앞지르거나 대체하는 특이점이 가까웠다는 전망과 함께 문화생산자로서 인간의 지위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문화예술 분야 및 과학 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포럼을 기획하거나, 문화예술 생산자들의 우려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이를 공론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챗GPT는 상용화된지 얼마 되지 않은 현재까지 텍스트 위주의 지식 생산 뿐 아니라 시각, 청각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문화예술 생산까지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음. 기존의 문화예술에 대한 학습을 토대로 이용자가 요구하는 내용의 이미지, 동영상, 음악에 이르는 각종 형태의 상징적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2023년 할리우드 배우 및 작가들의 시위에서 확인되듯이 향후 생성형 인공지능이 더욱 가속적으로 발달하고 이용이 확산되면 문화예술 생산자로서 인간은 위협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단지 인간의 문화예술 생산을 지원하는 조력자로부터 인문화예술 생산에서 인간과 경쟁하며 인간의 역할과 지위를 빼앗을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짐.
- 생성형 인공지능의 가속적인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30년 뒤 문화예술 생산은 현재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 우리의 문화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거나 바뀌어야 할지도 모름.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유네스코의 국제적 협력이나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됨.
- 우선적으로 유네스코에서 과학 분야의 인공지능 윤리 권고와 함께 문화예술 및 지식 생산에서 인공지능의 역할과 그 한계 설정에 대한 적극적 논의와 그에 기초한 유네스코의 입장 혹은 권고가 시급하게 필요할 수 있음. 이러한 노력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주도적 역할이 국내 인공지능 연구 및 정책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국제협력 측면에서도 중요할 것임.

나. 글로벌화에 따른 갈등 대응과 적응 지원

- 글로벌화의 결과 상이한 문화 간 교류가 늘면서 한편에서는 글로벌 문화로의 수렴과 함께 로컬 문화의 정체성 자각이 동시에 나타남. 특히 글로벌화와 함께 한국의 위상이 빠르게 상승하고, 내부적으로는 압축적 발전의 결과 세대 간의 경험 차이가 상이해짐. 이러한 복합적 문화변동 속에서 갈등에 대응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활동이 요구됨.

-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와 함께 향후 이민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늘어나고 있음. 한국에서는 그동안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규범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었지만, 향후 이민의 증가와 함께 다인종, 다민족 현실이 본격화되면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증가가 예상됨.
 - 이민의 증가와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의 급증과 함께 예상되는 갈등에 대비해서 문화다양성과 관용 및 공존을 위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국내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커질 것으로 예상됨. 문화다양성이 현실이 되었을 때 나타날 문제들을 예상하고 그에 따른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의 적극적 전개 뿐 아니라 갈등이 나타날 때 그 해결을 위한 중재자로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임.
 -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이 늘어나야 한다면 한국이 보다 이민에 친화적인 제도와 문화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시급함. 이를 위해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세계시민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며 인식 및 나아가 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글로벌화와 함께 한국의 글로벌 위상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한국의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과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한국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한국 방문으로 이어지고, 국내에서도 여가를 위한 여행이 늘면서 문화유산이 과도한 관광(overtourism) 때문에 보호와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음. 향후 이 문제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중심으로 문화유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과도한 관광으로 현지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문화유산의 훼손 우려가 높은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문제임. 유네스코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201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전개해 왔음. 이 문제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활동과 함께 글로벌 차원에서 문화유산을 지키는 노력에 함께 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음.
- 한국의 문화유산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 하지만 이제는 그에 못지않게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한국의 문화유산들을 보호하고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유산을 잘 이해하고 아끼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특히 관심을 가질 집단은 50대 이상의 장년층 집단임. 미래 인식 관련 조사에서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이 가장 높은 집단이 50대인 반면 가장 낮은 집단이 20대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음. 50대 이상의 장년층을 중심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소개를 하는 한편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임.

다. 한국의 글로벌 위상 제고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한국의 글로벌 위상은 경제성장과 GDP 증가에 따른 위상의 제고라는 측면과 함께 한국의 문화적 발전에 따른 매력의 증가라는 측면이 함께 존재함. 전자가 하드파워(hard power)의 증가라면 후자는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증가라고 할 수 있음. 한국이 유네스코에 가입한 1950년대에 비해 현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엄청나게 변화했으며, 30년 뒤에는 더욱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그에 따라 문화 분야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준비가 요구됨.
- 1950년 한국전쟁 직전 유네스코 가입 당시 한국은 신생 독립국으로서 선진국의 원조와 협조에 의존하였음. 그에 따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글로벌 차원의 지적·도덕적 연대를 통한 한국의 근대화과 문화 발전에 대한 지원을 매개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

- 해 왔음. 하지만 70여년 동안의 한국의 성장과 발전, 글로벌 위상의 상승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를 제기함.
- 과거 냉전시대의 자유진영(제1세계), 공산진영(제2세계), 그리고 저개발국(제3세계)의 구분이 이제는 선진 제국과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구분으로 바뀌었으며, 한국은 냉전시대 제3세계인 저개발국에 속해 있다가 성장과 발전의 결과로 이제는 선진국의 일부에 합류하게 되었음. 그에 따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역할 역시 냉전시대 자유진영의 문화적 지원이나 영향의 매개로부터 글로벌 시대 선진국 간의 교류 강화와 함께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지원에 이르는 적극적인 것으로 바꿀 필요가 발생함.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국가유산청과 함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지원하는 ODA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이러한 적극적인 역할을 취하고 수행하는 예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세계기록유산 등재 외에도 한국 청년들의 문화적 역량과 잠재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휘하면서 글로벌 사우스 청년의 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ODA 사업 또한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라. 유네스코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과 혁신

- 20세기 중반 냉전이 시작되던 무렵의 유네스코는 정치, 경제 위주의 진영 간 하드파워 경쟁과 진영 내 국제협력이 중요한 상황에서 문화를 주류화하고 문화유산과 전통을 지키며, 인류 차원의 지적·도덕적 연대를 강화하는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음. 하지만 지금은 유네스코의 창립 당시의 상황과는 매우 다른 상황에 직면하였음.
- 21세기 이후 하드파워의 경쟁만이 아닌 소프트파워의 경쟁 또한 중요해지고, 문화다양성이 규범화되는 시대에 유네스코는 더 이상 국제적으로 문화 분야에서 유일한 국제협력 조직이 아님. 변화하는 상황에서 유네스코는 뒤따라 생겨난 다른 조직들과 보조를 맞추고 협력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유네스코의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할 필요성 역시 대두하였고, 한국의 국내 상황 변화와 맞물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시 새로운 정체성과 역할을 정립할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였음.

- 20세기 후반 글로벌 차원에서의 비정부기구(NGO)들이 다수 생겨났으며 특히 냉전 종식 이후에는 이들의 활동무대가 더욱 확장되었음. 문화 분야에서도 상호교류와 다양한 대의를 추구하는 국제조직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음. 유네스코는 문화 분야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심적인 조직의 위치를 여전히 지키고 있음. 하지만 유네스코는 더 이상 문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유일한 조직이 아닌 여러 조직 중 하나이며, 다른 조직들과 협력하며 함께 활동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였음.
- 한국에서도 80년대 말 민주화 이후 다양한 민간 차원의 문화 교류와 문화운동 조직들이 등장하는 동시에 다양한 시민교육 및 연구기관들의 활동이 활발해져 왔음. 200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조직들의 활동무대가 글로벌하게 확장되었음. 이러한 변화 속에서 유네스코의 정체성은 문화, 교육, 과학과 커뮤니케이션을 아우르는 종합주의 조직보다는 여러 유관 기관들과 중첩되는 영역에서 경쟁과 협력을 하는 조직으로 바뀔 필요가 제기되었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러한 변화와 새로운 모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에 부응하는 시도에 유리한 조건을 가졌음.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정부 기구에 속하지 않고 민관 협력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직으로 독자적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민간 차원에서 글로벌 협력과 공익 추구를 위한 고유한 사업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위에서 제안한 활동들을 포함해서 국내에서는 물론 글로벌 차원에서 유네스코 본부에 새로운 의제(agenda)를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 및 사업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V . 커뮤니케이션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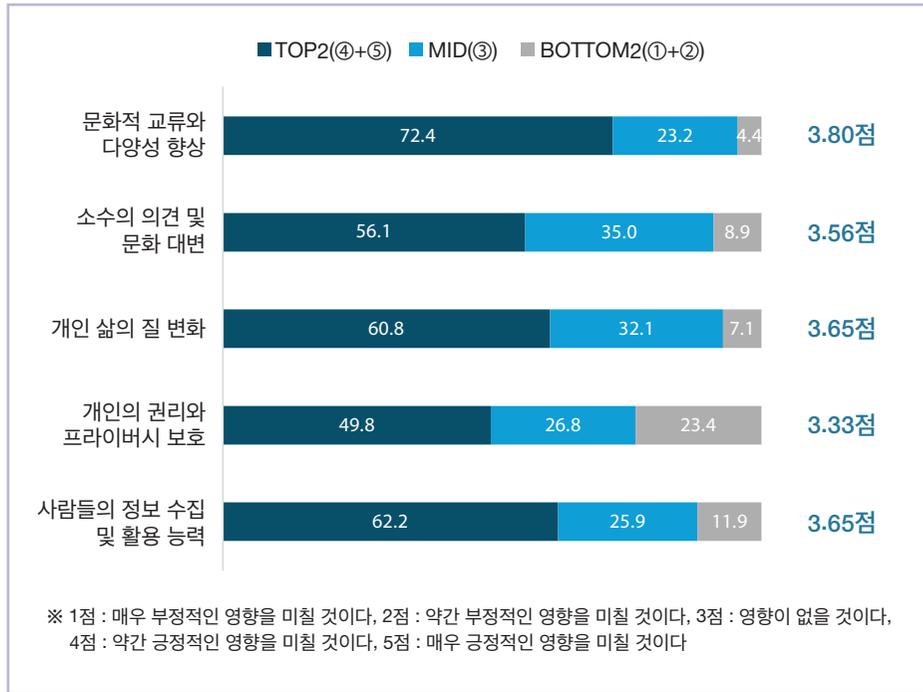
김은미

- 커뮤니케이션 영역은 인간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정보나 정서의 교환을 아우름. 대인 간 대화, 뉴스를 포함한 집단 내 정보의 유통을 포함해 기능적으로는 한 집단 내 인식, 정서, 아이디어, 스토리 등을 서로 공유하는 역할을 함. 더욱 중요한 것은 상호 메시지를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관계나 집단에의 소속감, 타인에 대한 인식이 구성됨. 관계나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에 메시지의 교환 양상과 깊은 관련성을 가짐.
- 개인의 관점에서는 정보의 수용과 처리를 통해 다양한 경제적 기회를 취하게 되는 것뿐 아니라 각자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주체성의 인식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이룸. 집단의 관점에서는 문화를 만들고 개인과 공동체를 조화시키는 일이 이에 해당함.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이 제공하는 하드웨어(hardware)적인 혹은 소프트웨어(software)적인 기제에 따라 어떤 양식의 정보 교환이나 상호 인식을 활성화하는 지에 영향을 주므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임.
- 2010년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일상의 사회문화적 행동에 대한 데이터의 축적이 폭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AI의 일상 침투가 빨라지는 현 시점에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공론화하고 의제화하는 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1. 미래 변화 인식

- 설문조사의 결과 중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결과들을 총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사람들은 30년 뒤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상당히 진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또한 대체적으로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사회 각 부문의 영향력을 영역별로 나누어 보면 문화적 교류와 다양성 향상(72.4%), 개인의 삶의 질 제고(60.8%), 사람들의 정보 수집 및 활용 능력 향상(62.2%)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 견해가 지배적임.
- 단,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에서도 개인의 권리와 프라이버시가 과연 보호될 것인가(49.8%)와 소수의 의견 및 문화가 제대로 대변될 것인가(56.1%)에 관해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전망의 비율이 약간 낮고 부정적 전망의 비율은 약간 높았음.
- 아주 큰 차이를 보이는 패턴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전반적으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가져올 변화를 긍정적으로 전망하지만, 프라이버시, 소수자 대변 등 구체적인 이슈에 관해서는 우려하는 시각이 있음.
- 특히, 개인의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비판 전망은 여자(27.5%), 20대 이하(27%)에서 높았는데, 이는 미디어 기술 범죄의 주요 타깃이 되는 젊은 여성들의 불안과 불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우려를 보이고 있는 소수자 대변 이슈에 관해서는 비판적 전망을 한 사람들 중 연령별로는 20대 이하(11.6%)와 계층별로는 최하위계층(14.3%)이 많다는 점이 특징적임.
 - 최하위계층은 전반적으로 삶의 전망이 어둡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석할 수 있음.
 - 그러나 흔히 다양한 디지털 기기 활용에 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20대 이하가 이들 이슈들에 대한 비판적 전망이 높은 것은 그만큼 미디어 공간에서의 생활이 많고 다양할수록 실제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확률이 높은 것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음. 그만큼 현존하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함.
- 긍정적 전망이 비교적 일치하는 만큼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인과 사회가 걸맞은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음.

그림 V-39. 문화·개인·사회에 대한 30년 뒤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영향력



Base : 전체, N=2,000, Unit : %, 점/5점

- 사람들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 진화로 나타날 사회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었음.
- 가상현실 기술은 다양한 세상을 경험하게 하고(63.5%),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가 등장할 것이며(57.4%), 콘텐츠가 다양화되고(62.1%),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확대될 것이며(60.4%), 개인주의(권위주의의 대척점으로서)가 강화될 것이고(71.2%) 민주주의도 더 발전할 것이라는(62.7%) 기대를 가지고 있음.
- 이들 중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측은 현재 조사에서 30년 뒤 한국이 더 나아지려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물었던 질문에 대한 응답과 중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응답자 중 18.1%가 공정하고 안전한 언론을 갖는 것이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여 양질의 언론을 중요시하고 있고, 동시에 언론의 품질이 현재 문제라고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
- 개인의 표현의 자유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은 20-30대가 40-50대에 비해 높

게 나타나는데, 이는 젊은 세대의 미디어 이용을 통한 표현, 참여 경험이 효능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전망을 하게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비관적 전망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던 이슈는 디지털 기술의 격차(디지털 디바이드 현상)가 벌어지고(57.2%), 글로벌 거대 기업의 정치경제적 지배력이 확대(55.8%)될 것이라는 예측에 관한 것임. 전반적으로 새로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진화가 가져올 미래가 더 밝은 미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가운데 이 두 문제에 관해서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이 특징적임.
- 특히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는 20대 58.0%, 30대 59.2%, 40대 55.7%, 50대 56.4%로 작은 차이지만, 연령대가 낮은 20-30대가 우리 사회에게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격차를 더 경험하고 있고 그것을 문제라고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V-40. 30년 뒤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에 따라 예상되는 현상별 의견 AI/VR(가상현실)



Base : 전체, N=2,000, Unit : %

그림 V-41. 30년 뒤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에 따라 예상되는 현상별 의견 디지털기술 격차



Base : 전체, N=2,000, Unit : %

그림 V-42. 30년 뒤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에 따라 예상되는 현상별 의견_미디어 신뢰도



Base : 전체, N=2,000, Unit : %

그림 V-43. 30년 뒤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에 따라 예상되는 현상별 의견_미디어 플랫폼



Base : 전체, N=2,000, Unit : %

그림 V-44. 30년 뒤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에 따라 예상되는 현상별 의견_콘텐츠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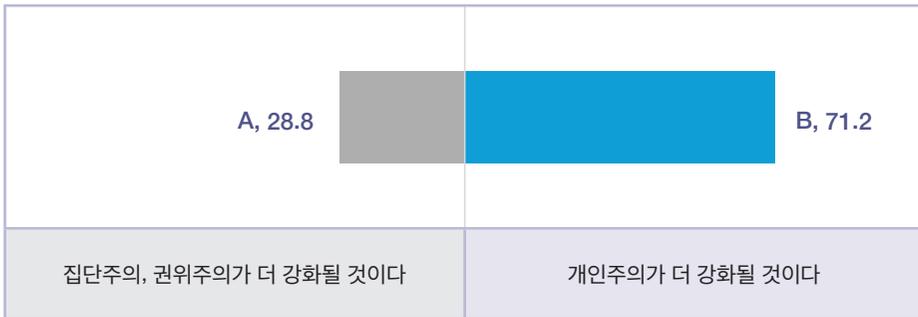
Base : 전체, N=2,000, Unit : %

그림 V-45. 30년 뒤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에 따라 예상되는 현상별 의견_개인의 자유



Base : 전체, N=2,000, Unit : %

그림 V-46. 30년 뒤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에 따라 예상되는 현상별 의견_집단/권위주의 및 개인주의



Base : 전체, N=2,000, Uni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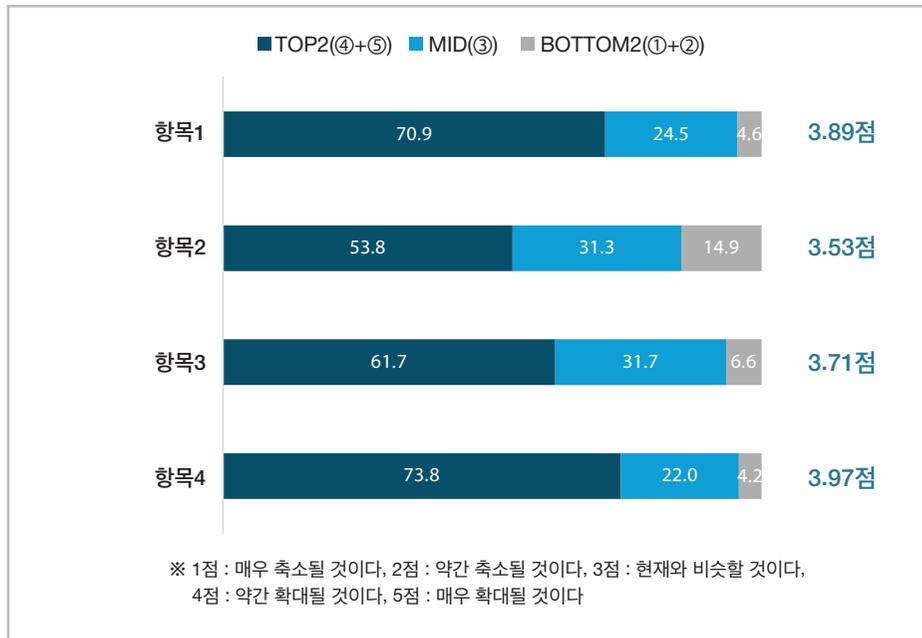
그림 V-47. 30년 뒤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에 따라 예상되는 현상별 의견_민주주의



Base : 전체, N=2,000, Unit : %

- 미래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 중 콘텐츠의 내용별, 연결방식별로 나누어 전망하였을 때에도 대체적으로 앞으로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함.
- 내용별로는 방송이나 OTT 같은 영상미디어의 영향력(72.9%)과 AI가 가공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디어의 영향력(79.2%)에 관해 특히나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함. 이는 현재 최근에 활용성이 높아진 콘텐츠 영역에 대한 기대감과 화제성에 대한 반응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뉴스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56.6%)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기대감을 보였음. 이는 사회적인 양극화 현상의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언론에 대한 낮은 신뢰감과 관련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연결방식의 측면에서는 소셜미디어(SNS)(70.9%)와 메타버스류(73.8%)의 영향력이 특히나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매스미디어(53.8%)나 소그룹 교류 미디어 영향력(61.7%)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20대가 커뮤니티나 카페와 같은 소그룹 교류 미디어가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53.2%)을 적게 했음.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흡수력이 빠른 젊은 세대가 기존 미디어 연결방식에서 빠르게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음.

그림 V-48. 30년 뒤 미디어 유형별 영향력: 연결방식의 측면



Base : 전체, N=2,000, Unit : %, 점/5점

-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대체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은 개인이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음.
-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개인이 ‘어느 정도 혹은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대 다수인 75.0%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21.7%,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3.3%)’는 의견은 소수였음. 이는 응답자들이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효용에 관해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이용 역량을 기르는 문체에 관해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낙관적인 미래 전망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가져올 편익에 대한 강한 인식이 폐해에 관한 대비나 성찰의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잠재위험이기도 함. 폐해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미디어 활용의 혜택과 폐해를 동시에 강조하는 균형 잡힌 미디어 리터러시 스킬 개발과 공론화가 한국사회에 중요함을 말해줌.
- 개인적 차원에서는 디지털 문해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72.8%)이 절대적이었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AI기술의 확대가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파괴력(일자리(73.4%), 기술의 윤리성과 공공성(74.9%)에 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대적이었음.
- 특히, AI기술에 대한 규제·관리가 시급하다는 응답률(74.9%)이 높은 것은 현재 AI기술이 미디어와 결합하여 다양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심각성과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인식을 디지털 안전 개념과 같이 포괄적인 인식틀로 진화시킬 필요가 있음.
- AI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이 최상위계층(92.7%)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고도화된 인간의 직업 영역까지 AI가 대체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상당한 걱정과 우려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V-49. 앞으로 변화될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개개인의 대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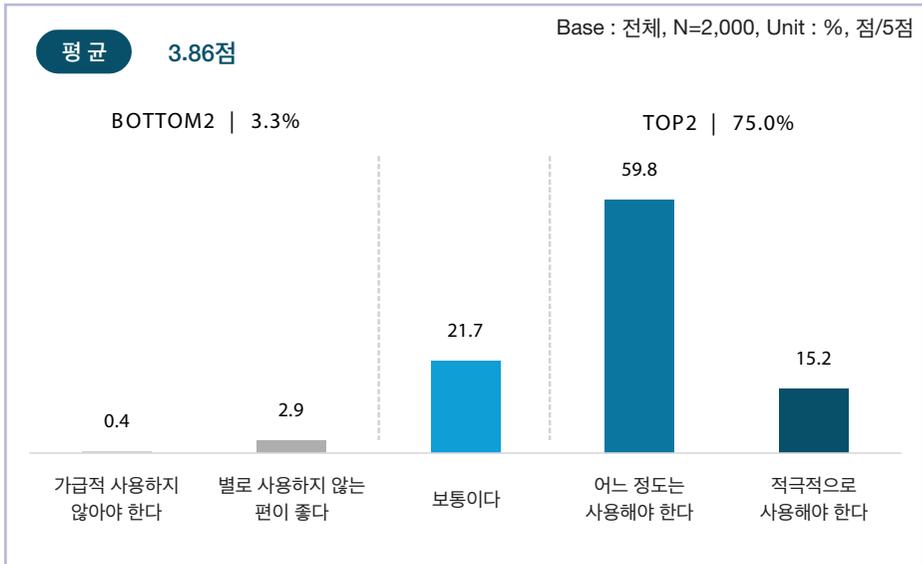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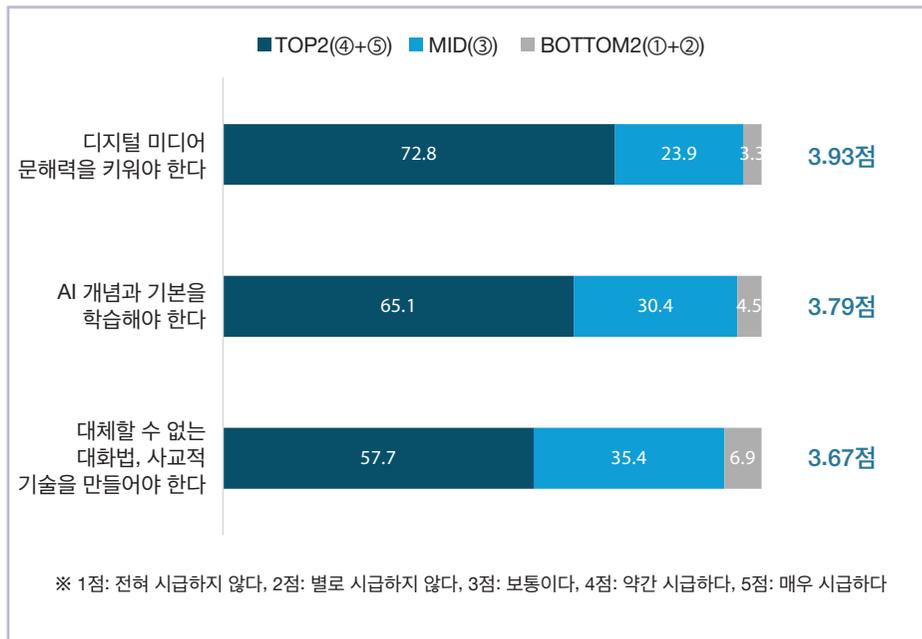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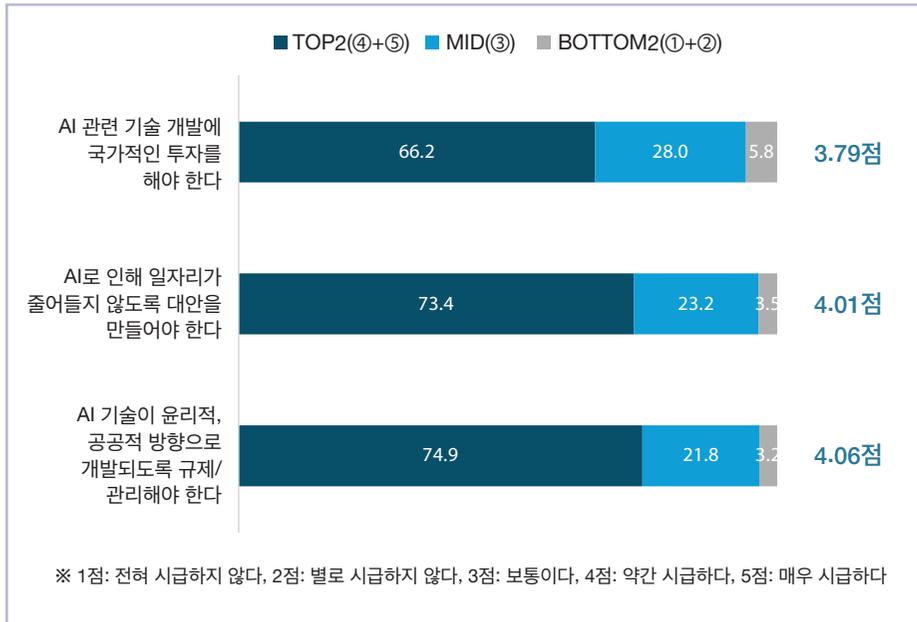


그림 V-50. 향후 30년을 전망했을 때 개인/사회적 과업별 시급성: 개인적 측면



Base : 전체, N=2,000, Unit : %, 점/5점

그림 V-51. 향후 30년을 전망했을 때 개인/사회적 과업별 시급성: 사회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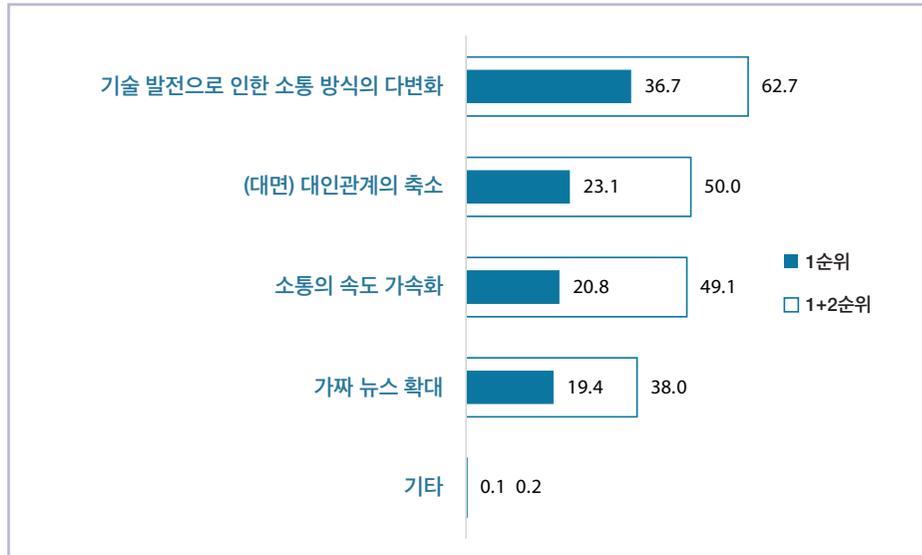


Base : 전체, N=2,000, Unit : %, 점/5점

- 사람들은 미래 사회에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에 따라 대인관계가 축소할 수 있을 것(50.0%)이라는 점과 소통이 점차 가속화된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는 어느 정도 현재에 이러한 변화들을 일상적으로 체험하고 있음을 말해줌.
- 대인관계의 축소는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의 경험인데 이것이 확대될 경우 갈등 조정 역량의 저하, 사회적 협력의 축소 등의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음. 이는 특히 현재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위기요소 중의 하나가 사회적 갈등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더욱 중요함.
- 흥미로운 조사 결과는 ‘대인관계 축소’나 ‘소통의 가속화’와 같은 미래 전망에 있어서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이 두드러진 인식의 격차를 보인다는 점임. 이는 현재 타인과의 소통이나 정보 활용에 있어서 계층 간 경험의 질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시사함.
- 대인관계 축소의 전망은 1순위 기준 최상위층(10.6%)에 비해 최하위층(22.1%)이 매우 높음.

- 반대로 소통의 가속화에 대한 전망은 1순위 기준 최하위층(22.3%)에 비해 최상위층(29.2%)이 높게 보고 있음.

그림 V-52. 한국사회의 영역별 미래_커뮤니케이션



Base : 전체, N=2,000, Unit : %, 순위응답

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대한 시사점

가. 커뮤니케이션 분야 시민들의 미래 인식 조사 결과에 대한 시사점

- 미디어 리터러시의 정립과 확산의 필요성
 - 사람들은 다양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등장으로 소통의 기회가 더욱 확장되고 아이디어의 교환이 활발해지며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고 교류하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에 대해 상당한 관여도를 갖고 지켜보고 있으며 낙관적 전망이 지배적임.
 - 이는 단지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확대에 대한 기대뿐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사회문화적인 문제를 해소하는데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이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포함함.
 - 이러한 기대감과 낙관적 전망은 스스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가져오거나 확산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오히려 무비판적이고 축소해서 반응할 수도 있는 위험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
 -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에 관한 공론화와 인식 정립에 있어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개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로서 국제연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을 확산하는데 있어 타 기관에 비해 활동의 여지가 넓다고 할 수 있음.

-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잠재적 위협에 관한 인식
 - 현재 한국의 미디어 환경은 깊은 관여나 성찰을 유도하고 이러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자에게 성과가 주어지는 방식으로 시장이 구조화되어 있지 못하고, 주목을 낚는 방식의 소셜 플랫폼을 기반 구조로 하고 있음. 소셜미디어의 폐해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수준이 해외에 비해 한국은 낮은 편임.
 - 시민들은 전체적으로 낙관적인 전망 속에서도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시장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기업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정확히 인식하고 있음.
 - 개인적 차원에서는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의 프라이버시 개념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가져온 새로운 소통방식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개인의 인권보

호나 나다움의 유지와도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시민들이 감지하고 있음.

- 사회적 차원에서는 소통의 기술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사이에 디지털 격차를 더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갖고 있는데, 특히 AI 관련 기술의 약진으로 소통의 영역이 더욱 팽창하고 가속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해서는 사회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할에 관한 시사점

1) 사회적 수준의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에 대한 담론적 리더십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한국의 상황
 - 미국의 경우는 학교에서뿐 아니라 학계, 언론사, 시민단체와 민간 싱크탱크(think tank) 등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에 관한 공론화가 이어지고 있었고 축적된 담론적 바탕 위에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법안으로 의무화하고 있음.
 - 한국은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에 대한 활발한 논의나 각종 제도의 도입은 느렸으나 2022 개정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각 교육과정 안에 반영됨. 도입은 느렸지만 공교육에 진입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임. 그러나 아직 이러한 활동이 전방위적으로 퍼져있는 해외에 비해 부족하며 AI 환경의 도래와 함께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됨.
 - 공교육 이외의 영역에서는 시민 교육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로 담당함. 방송통신위원회는 산하 시청자 미디어재단을 중심으로 어린이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미디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로 활용역량을 키우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도 가짜뉴스 중심으로 뉴스 소비에 관한 역량을 키우고 대학교육을 지원하는 등에 역점을 두고 있음.
 -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을 오롯이 총체적으로 공론화하고 확산하는 큰 그림이 없는 공백 상태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담당할 수 있는 공간으로 봄.
- 미래지향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에 관한 담론적 리더십
 - 여전히 국내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은 개인이 갈고 닦아야 하는 책무를 갖는

역량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방송통신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도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루어져 사회적 수준에서 총체적으로 구성되는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에 대한 시민의 이해 수준의 정도는 낮음.

- 미디어 리터러시가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으며, 정치적 양극화나 가짜뉴스 문제에 집중하여 오히려 미래지향적 논의는 잘 보이지 않는 상태임.
- △공동체 내에 정보의 소통이 원활한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고루 배분되어 있는가 △적절한 가격에 미디어 접근이 가능한가 △정보 생산의 방식은 사회적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을 제고하는 데 방향성이 맞추어져 있는가 여부 등 총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이슈를 꾸준히 제기하고, 이러한 이슈들이 일반 시민 사이에 회자되고 성찰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함.
- 개인적 차원에서도 정체성과나다움의 유지 문제, 프라이버시의 관리 문제,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나 디지털 범죄의 문제 등 미디어 안에서의 삶에 관해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미디어 리터러시의 논의는 어떻게 개인이 디지털 미디어를 잘 ‘활용할 것인가’에 주로 머물러 있음.
- 시민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를 확산하는 방법도 전통적인 교육에 머물러 있어 방법의 다양화도 필요함. (예: 미국 모질라 재단의 Youtube regrets 캠페인 등)

○ 네트워크 지원을 통한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간의 협력사업과 국제활동 활성화

- 정부기관이나 NGO, 교사모임 등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국내 활동을 유네스코 본부 차원의 국제적 활동과 연계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나의 구심점을 중심으로 규합하고 네트워크화할 때 상호 간 상승적인 역할을 시작할 수 있다고 기대함.
-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은 글로벌 플랫폼의 확산과 자유로운 접속 및 소통이 표준이 되어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활동들이 국내외를 가리기 어려움.
- 예컨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국내 전문가들이나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 다양한 시민단체, 활동가, 공무원들의 구심점이 되어 각국 국가위원회와 교류하거나 유네스코 Global Media and Information Week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참여를 통해 전문가와 담당자들의 네트워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유지에 초점을 두고 지원하는 사업의 의미가 크다고 봄.

- 국제적 네트워크의 유지와 활동은 반복적인 참여와 지속성이 요구되는데,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 담당자들이 순환 보직 등으로 오래 국제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네트워크의 중심점이 되어준다면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활동이 배가될 수 있음.
- 특히 유네스코의 Information for All 프로그램의 경우 국가 내 정보 흐름의 불평등 제거와 다양한 자료의 축적과 보존, 정보 접근권, 정보 윤리 등을 다루는 총체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이러한 활동에의 참여와 한국 내 이슈 제기를 통해 사회적 수준에서 구성되는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에 대한 이해를 고양시킬 수 있다고 봄.
- 국제 교류는 별도의 사업이 아니라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에 관한 담론적 리더십 구축과 함께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될 수 있음.
- 유네스코의 이름으로 해외 대규모 시민단체와 국내 시민단체가 연계하는 일을 지원할 수도 있음. (예: Data & Society, Mozilla Foundation, Team Human 등)

○ AI리터러시의 도입에 관한 초기 역할

-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에 관한 담론적 리더십 구축은 이를 통해 AI리터러시에 대한 시민적 담론을 구성하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국내적으로는 AI 리터러시의 다양한 측면들(윤리, 사회문화적 문제 등)에 대해 전문가의 관심은 매우 높으나 시민 수준에서의 관심이나 담론은 부족한 실정임.
- 이러한 격차를 유네스코가 미디어 리터러시의 연장선상에서 메우면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음.

2)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과 한국의 사회적 난제

- 아래의 이슈들은 한국이 봉착한 사회적 난제들에 대응함에 있어 커뮤니케이션 영역과 깊이 관련된 부분들로서 부분적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들임.

○ AI 기술의 인간 커뮤니케이션 개입

- AI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인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연스러운 대화와 이미지 생

산이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보다 정교한 수준의 허위 정보 생산과 편향성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AI 기술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음. 또한 이번 조사에서도 일반 시민들도 이러한 AI 기술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크고 규제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하게 나타남.

-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문제와 피해가 커지면서 기업과 과학자들은 디지털 기술 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음.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2022년 초 AI 모델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을 분석·탐지·완화·제거하는 ‘MAF(MSIT AI FAIR) 2022’를 개발함.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경우 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를 분석하는 기술을 2021년 9월에 개발함.
- 기술적인 대응뿐 아니라 AI의 리스크 관리 체계의 방향성 제시가 중요함. 국내 시장에서도 AI와 그룹채팅을 하거나 일대일로 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커뮤니케이션 앱 서비스를 선보인 카카오는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기술 개발 및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 지침을 마련함. 기술의 설계부터 개발, 테스트, 배포, 모니터링, 업데이트 등 AI 시스템의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AI시대에도 사용자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임.
-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가, 인간능력에 대한 대체를 우려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인간의 능력을 고양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고민이 충분한가 등 시민적 차원의 관여적인 대화가 필요한 시점임.

○ 과잉 소통의 피로감과 삶의 질

- 물질주의와 경쟁에 대한 피로감은 과잉소통과 온라인 관계거리에 대한 피로감과 중첩적으로 나타남.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 특히 두드러지며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남.
- 과도한 미디어화로 인하여 미디어가 지배하는 일상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대인관계 관리에 쏟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인간관계에 대한 피로증후군이 나타남.
- 경쟁으로 인해 타인의 평판에 대한 근심(이병혜, 2016),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Xie, Jin, & Bai, 2024) 등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과잉소통의 문제는 미디어 리터러시 차원에서도 다루어야 함.

○ 디지털 범죄와 인권

-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금융 등의 범죄가 온라인상에서 쉽게 모의, 실행, 유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AI를 이용한 딥페이크·딥보이스 기술을 통해 성적 허위 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정보 기술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불법 생성물 탐지 기술은 사후 조치로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는 데다, 탐지 기술을 우회하는 신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접근만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만큼 교육을 비롯한 제도적 보완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특히 딥페이크 영상의 유포는 기술적 문제이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 규범을 상실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비뚤어진 인권 의식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음.
- 단순한 법적 규제가 아닌, 이용자들의 사회적 책임과 의식을 높여 인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온라인 소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건강한 온라인 소통 문화 가이드라인, 소통 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기술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지속적인 국제 공조와 협력도 요구됨.

○ 온라인 정치양극화

- 미디어 편향성(박지영, 2020), 온라인의 익명성과 비대면성(나은영 차유리, 2012) 등은 온라인의 정치 갈등을 극단적으로 표출하게 하고 온라인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
- 온라인 공간에서의 혐오 표현은 사회 구성원의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의 ‘21년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3%가 온라인 혐오표현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변했으며, 90.2%가 혐오·차별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답했음.
-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와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입법적 해결 노력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현실적 대안으로 공적 합의에 기초한 자율규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음.
- 또한 양극화 인식이 커질수록 이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크게 나타나는 연구 결과(나은영, 호규현, 최근원, 2023)는 온라인의 정치양극화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사람들에게 인식될수록 현실 사회의 갈등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과 소통을 확대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배광빈, 류인권, 2020). 국민의 공적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갈등 인식 수준이 낮아지고, 공적 소통보다 사적 소통이 갈등 인식 수준을 낮추는 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정책적 지점이 공적소통 영역에 한정되어선 안 되고, 사적소통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보여줌(임현철, 은재호, 2020).

○ 가짜뉴스와 기후위기

-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가짜뉴스(fake news)는 통상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적·악의적으로 왜곡하여 퍼트리는 정보를 의미함. 최근에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deepfake) 영상·사진 등이 가짜뉴스 확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유네스코가 실시한 미국·멕시코 등 총선·대선을 앞둔 16개국 시민들에 대한 글로벌 설문조사(23.8~9)에 따르면 응답자의 85%가 온라인 가짜뉴스의 영향력이 우려된다고 답했으며, 정부 및 규제 당국이 가짜뉴스 해결을 위해 SNS 규제에 착수해야 한다는 비율도 88%에 달했음. 미국·EU 등 주요국은 생성형 AI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표기 의무화 등의 조치를 논의함.
- 기후위기가 전 세계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가 차원의 능동적인 대응책이 절실하며, 국민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토론이 활발히 이뤄져야 함. 미국 등 서구사회에서는 기후변화 옹호론자와 회의론자들이 활발한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국내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여론 형성을 위한 바람직한 담론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회의적임(지명훈 2015).
- 또한, 기후 변화의 원인과 효과에 대한 대중의 지식수준은 향상되고, 이에 따라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사람들의 실제적 행동 유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기후 변화 소통의 목적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중의 이해’로부터 ‘기후변화 퍼블릭 인게이지먼트(public engagement)’로 변화되어야 함. 기후 변화에 대한 지식은 기후변화 관심도, 기후변화 퍼블릭 인게이지먼트, 그리고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실천행동 등에 유의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정현주, 유영석, 2020).

참고문헌

- 나은영, & 차유리. (2012). 인터넷 집단극화를 결정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1), 103-121.
- 나은영, 호규현, & 최근원. (2023). 미디어 적대성 지각이 집단 간 양극화 인식과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빈부, 이념, 세대, 젠더 이슈에서 양극화 인식의 매개효과. *한국방송학보*, 37(4), 88-122.
- 박지영. (2020).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미디어의 정치적 편향성 및 선택적 미디어 노출로 인한 정치적 양극화: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상반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9(3), 213-243.
- 배광빈, & 류인권. (2020). 사회적 자본과 소통이 사회갈등 해소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7(2), 174-193.
- 이병혜. (2016). SNS 이용자들의 소셜미디어 피로감과 이용중단의도: 페이스북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4(2), 251-272.
- 임현철, & 은재호. (2020). 미래의 갈등관리, 어디로 가야하나? 공정성, 소통, 사회갈등의 삼각관계. *입법과 정책*, 12(3), 57-88.
- 정현주, & 유영석. (2020). 퍼블릭 인게이지먼트의 효과를 고려한 기후변화 소통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한국소통학보*, 19(4), 149-192.
- 지명훈. (2015). 기후변화와 의사소통의 합리성-한국과 미국 언론의 기후변화 뉴스 프레임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76, 325-343.
- Xie, X., Jin, G., & Bai, Q. (2024). Dealing With Unnecessary: The Mediation Role of Social Overload on Fear of Missing Out and Social Media Fatigue. *SAGEOpen*, 14(3), 21582440241266358.

VI. 결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미래 활동 주안점

채재은

1. 추진 방향

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정체성 재정립 및 의제개발 역량 강화

-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유네스코 의제 발굴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선도하기 위해서는 의제 발굴을 위한 내부 조직과 인력 확보가 필요함.
-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4대 핵심 영역(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이슈를 분석하며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구전담 조직 신설이 필요함.
- 연구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역할 변화를 긴밀히 파악하고, 다학제적 관점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발굴한 유네스코 의제를 유네스코 안에서 실효성 있게 선도하는 데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함.

나. 글로벌 협력 및 ODA 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

-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등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ODA 프로그램을 확대

하고, 지속가능하며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교육 분야) 기존의 성공적인 국제개발협력 사례(예: 브릿지 사업)를 기반으로 협력국의 정책가와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교육 변화를 촉진할 것을 제안함.
- (과학 분야)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기술의 확산과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위기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유네스코의 맥락에서 구상할 것을 제안함.
- (문화 분야) 유네스코 유산의 등재, 보호 및 활용, 문화다양성 증진 등 기구의 주력 활동 강화에 기여하는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을 제안함. 아울러, 한국의 문화 발전 사례를 전 세계 청년들과 공유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국제적인 문화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같은 새로운 사업 모델 역시 구상해 볼 것을 제안함.
- (커뮤니케이션 분야)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 등 디지털/온라인 환경에서 대두되는 ODA 방향을 고민해 볼 것을 제안함.

다. 세대별 참여 확대와 소통 강화

-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세대 간 경험과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을 증진할 필요성이 있음.
-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 협력 강화) 세대 간 경험과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 있는 워크숍, 포럼 등을 통해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 협력적인 혁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함.
- (중장년층의 적극적 참여 독려) 장년층이 보유한 지식과 자부심을 활용하여 문화유산 보호 활동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독려할 필요성을 제안함.

라. Cross-cutting 과제 발굴 및 연계 추진

- 각 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통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을 강화할 필요성이 확인됨.

- (Cross-cutting 과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평생학습, ODA 사업 내 다분야 협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포용적 사회를 위한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의 접목, AI와 디지털 플랫폼의 윤리적 활용과 규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문화적, 과학적 접근 등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함.

2. 추진 과제

가. 교육 분야 과제

- 한국 교육문제 해법에 대한 글로벌 논의 촉진
 - 단순히 국제적인 교육 의제를 국내에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의 교육 현안과 문제를 국제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의제로 제안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
 - 이를 통해 유네스코 본부 및 지역사무소와 협력하여 한국의 교육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적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함.
- 평생교육과 평화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지원
 - 평화와 협력은 평생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양되어야 할 역량으로, 평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를 학교 내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도 확장하여 사회 전반에 평화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와 연계해 평생교육 기회를 지역 사회에 확대하고, 다양한 세대가 유네스코의 이념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지역사회 기반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수도권 집중화 문제와 지방 소멸 위기로 인해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지역사회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함.
 -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학습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도입하는 방안,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각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살린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안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시도교육청의 국제교육협력 지원 기능

- 각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도 국제교육협력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 교육콘텐츠나 네트워크의 부족, 담당자들의 국제화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성과 면에서 기관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따라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및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국제교육협력을 희망하는 국내 교육 주체들의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나. 과학 분야 과제

○ 과학 문해력 강화

-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과학 문해력(science literacy) 함양은 누구나에게 필수적임.
- 따라서 모든 연령과 계층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학적 논의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학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생명윤리와 첨단 과학기술의 윤리적 기준 수립

- 새로운 윤리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인공지능, 생명공학, 합성생물학 등 첨단 과학기술의 윤리적 기준을 수립하고, 국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생명윤리와 첨단 과학기술윤리’ 관련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유네스코 의제에 적극 대응해야 함.

○ 과학기술과 사회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대응 전략

- 사회적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확인됨.

- 또한, 과학기술로 인한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포용적인 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해야 함.

다. 문화 분야 과제

-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화 창작 및 보호 지원
 -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는 문화 창작자들을 위한 권리 보호 가이드라인과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 기업과 협력하여 혐오 표현 및 개인적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기여해야 함.
 -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가속적 발전이 문화예술 창작자에게 미칠 영향과 예술 생산자와 인공지능 간의 윤리적 경계 설정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것을 제안함.
- 문화다양성과 관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 글로벌화와 이민의 증가 등에 대응하여 다른 문화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관용의 가치를 교육하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필요성을 확인함.
 - 또한 전반적인 문화적 수용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 캠페인 등을 추진 필요성을 확인함.
- 과도한 관광에 따른 문화유산 보호 방안 마련
 - 과도한 관광으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 위험에 대응하여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광객들에게 문화유산의 가치와 보호 필요성을 교육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시됨.
 - 또한, 과도한 관광으로 인한 문화유산의 훼손 문제를 다루는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확인함.

라. 커뮤니케이션 분야 과제

○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공론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보 접근권 강화, 정보 윤리의식 고양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유네스코의 Information for Al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미디어 리터러시와 정보 윤리에 대한 국제적 담론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성이 있음.

○ AI와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활용과 관리 교육 확대

- AI 기술이 내포하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고려할 때,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시민들이 AI 기술의 윤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확인됨.
- 또한, AI 기술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정보 주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이 AI와 관련된 위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디지털 소통기술 격차 해소와 소수자 보호

- 정보와 기술에 대한 접근성 격차가 소통 불이익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공평하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함.
-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소수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되지 않거나 소외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 역시 확인됨.

○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

- 딥페이크 등 허위 정보가 날로 정교화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시민들이 허위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교육

을 확대해 나가야 함.

-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허위 정보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확인됨.

마. Cross-cutting 과제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평생학습
 -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 모두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통합적 리터러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예를 들어, AI와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활용에 대한 교육 콘텐츠 개발을 추진해 볼 수 있음.
 - 교육과 문화 분야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을 고안하는 등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해 교육과 문화 분야를 연계할 수 있음.
- ODA 사업 내 다분야 협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성과를 결합한 ODA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함. 예를 들어, ‘브릿지 사업’을 확장하여 교육과 과학 기술을 결합하고,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도입하는 방안, 또는 협력국의 교육 및 문화적 역량 강화에 과학적 지식을 접목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윤리적 기준 수립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확인됨.
 - 또한 글로벌 이슈(예: 기후위기, 허위 정보, 문화유산 보호)에 대해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국제협력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함.
- 포용적 사회를 위한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의 접목
 - 글로벌화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다문화 수용성과 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교육과 문화 분야를 통합하여 다문화 관용과 다양성을 장려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지역 간 소통과 문화적 이해 증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모든 분야에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 확대해야 함.

○ AI와 디지털 플랫폼의 윤리적 활용과 규제

-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기준을 통합적으로 수립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장점을 활용하면서도 프라이버시, 편향성, 허위 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함.
-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적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윤리적 활용 방안을 제안할 필요성이 확인됨.

○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문화적, 과학적 접근

-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학적 과제로 부상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 연구를 문화유산 보호와 연계할 것을 제안함.
- 특히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기후 적응을 위한 전통적 지식의 활용을 촉진하는 접근을 제안함.
- 과학적 연구와 전통적 지식을 통합하여 기후 적응 및 문화유산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시됨.
- 커뮤니케이션과 문화 분야의 역량을 활용하여 기후 변화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확산을 방지하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 행동을 촉진하는 글로벌 캠페인 등을 전개할 것이 제안됨.

2024 유네스코 미래담론 연구

한국 사회의 미래 변화 인식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미래 활동 방향

기획 및 발행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발행인 한경구

발행일 2024년 12월 16일

집필진

채재은 |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환보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박범순 |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한 준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은미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편집 김은영, 백영연

디자인 수카디자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전화 02-6958-4100

전자우편 ap.center@unesco.or.kr

홈페이지 www.unesco.or.kr

간행물 등록번호

MI-2024-RR-1

이 보고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대한민국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교육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에 이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